

약한, 아픈, 미친 사람들의 광장 '약자생존' 22 09 24



약한, 아픈, 미친 사람들의 광장 '약자생존' 22 09 24



민우 풋살리그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아니다' 22 11 05

경이

- ② 민우 캘린더
- ④ 박은영 나의 아름다운 덕질을 위하여
- ⑥ 김슬기 내 몸에 새겨진 '흔들'
- ⑧ 안장맨 탈퇴드래
- ⑩ 김미진 장애 여성의 관점을 무대, 일상, 광장에서 확장하는 노동
- ⑫ 헬크 우당탕탕 민우회
- ⑭ 윤소 대통령이 보기 싫어 정치 뉴스를 외면하고 싶지만...
- ⑯ 온다 국회의 중심에서 연결될 권리를 외치다
- ⑰ 베리 성평등한 조직문화, 가보자고!
- ⑱ 은사자 잃어버린 시간주권을 찾아서
- ⑲ 해파리 '약자생존'의 사회에 미리 가 있는 사람들
- ⑳ 안개 '뚝딱의 용기'로 만난 일상의 변화 / 미론 다시 적극 회원이 되어야 할 시간 / 페미PICK
- ㉑ 열진 15명의 회원과 지독하게 얽힌 '크로스 인터뷰' / 월훈 소모임 리포트
- ㉒ 헬스 공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지
- ㉓ 지부소식/민우알림



2022년 후원의 밤 '공기처럼 일어설 것이다' 22 07 18

[소식지 리뷰얼 이야기2]
몸으로 만나는 기운 나는 소식!

안녕하세요, <함께가는 여성>편집팀입니다!
2022년 상반기 리뷰얼 첫 호가 발행되고 많은 분들이 새로워진 민우회 소식지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새롭게 '신문'이된 모습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았어요. SNS에 재밌었던 의견들 공유합니다.

민우회 소식지 신문처럼 나오니까 더 잘 읽힌다, 타자에 짝 퍼서 꼼꼼히 읽는 재미 (유유언니 님)

→ 짝퍼서 꼼꼼히 읽어주신다니 너무 감동

대판으로 바뀌었네 커다랗고 시원스럽고 멋짐 (ㅁㅁㅇ 님)

→ 그죠. 흰님들 속이 다 시원해지길

아니 글썽 민우회 소식지가 신문 사이즈가 되어서는 숨어서 하는 페미니즘 불가능해진 사연 ㅋㅋ (분노wang 님)

→ 지하철에서 소식지 짝퍼고 읽어보게 제 소원이예요

대문짝만하게 쓰인 문구들이 감동이면서, 신문, 신문인데 페미니즘이 가득 찬 신문이라고 생각하니 벅차기도 하네요 (초르츠 님)

→ 네, 페미니즘 가득 찬 신문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어제 신발 다 젖어서 말려야 하는데 집에 신문지가 얼마 전에 받은 민우회 소식지 밖에 없어 (디오 님)



→ 네네, 다 읽으신 후 얼마든지 다양한 쓸모로 재활용 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멋진 소식지로 함께해요! 234호 [나의 몸은 아직도 전쟁터]를 읽고 의견 남기고 싶은 분들은 QR코드로 접속하여 구글설문을 남겨주세요.



발행처 한국여성민우회
발행인 강혜란 최진영
편집인 김희영
발행일 2022년 12월 22일
동권 234호
편집위원 김이오 박효원 신혜정 채유진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26길 39 시민공간 나무 3층
전화 02-737-5783 (팩스) 02-738-5788
이메일 minwoo@womenlink.or.kr
디자인 오늘의풍경
사용 서체 [한글] 지백, 마포나무, 아르바나, 기후 위기 폰트: 한글, 다카포 [라틴] Avava, Compagnon, Women's Car Repair Collective

※ 민우회 소식지에 활용하는 서체는 다음 3가지 기준을 참고하여 선정합니다. ① 사회 운동의 중요한 순간을 기리는 서체 ② 여성, 귀어, 유색인종 등 그간 디자인계에서 과소대표된 공동체에 속한 디자이너의 서체 ③ (공동재로서의) 오픈소스 서체
※ '기후 위기 폰트: 한글'은 '헬싱킨 사노마트 (Helsingin Sanomat)'가 기획/제작한 '기후 위기 폰트: 라틴'의 한글 버전으로, 녹아내리는 빙하를 폰트로 표현한 글꼴입니다. 폰트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자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겨울이 너무 따뜻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은... 너무 미약해서... 대기업과 정부에서 뭘 해야 할텐데요... 예! 이것저것 규탄한다!!!

06

06 이슈트크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445 공동기자회견 '지금은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447 공동성명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부처 폐지가 아니라 강화다'
공동성명 '성별임금격차 '강화'를 선택한 2023년도 최저임금'

07

04 여성노동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 '국가는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412 공동주최 파리바게뜨 여성노동인권 개선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413 2022년 후원의 밤 '공기처럼 일어설 것이다'
공동성명 '일하는 모두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필요하다'
카드뉴스 '인하대 성폭력 사건에 부처: 언론은 선정적·자극적보도를 당장 중단하라, 인하대는 학내 문화 점검부터 이행하라'
공동성명 '피해자 보호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하지 않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규탄한다'

08

05 동시다발 파리바게뜨 매장 앞 1인 시위 'SPC 파리바게뜨와 헤어질 결심' 참여
447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식
447 1회용품 보증금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국 시민사회 공동선언
입장문 '제79회 베네치아영화제의 고 김기덕 감독 영화 초청을 규탄한다'

09

13 '원정 책임/손해배상 금지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식
성명 '일상이 두려운 공간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서로의 안전망이 될 것이다: 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살해사건에 부처'
416 집회 '어디도 안전하지 않았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해에 분노하며'
424 약한, 아픈, 미친 사람들의 광장 '악자생존'
38 공동성명 '여성가족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가족을 위한 법 개정에 앞장서라'
48 국회 토론회 '현실과 다른 가족 규정, 어떻게 바꿀 것인가?'
38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 '시대에 뒤떨어진 가족 규정 고수하는 여성가족부 장관 규탄한다'
38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및 유산유도제 도입 촉구' 공동기자회견 및 권리보장버스 행동
48 모니터 보고서 발표회 '제20대 대선, 언론은 '구조적 성차별'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다루었나?'

10

04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 (여성가족부 폐지)시도 즉각 중단하라'
05 이란 히잡관련 시위 한국시민사회단체 지지 기자회견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우리는 함께 한다'
411 민우회 지역활짝 라운드테이블
42 온라인연선 '성차별적 축제를 하는 제천시에 민원을 보냅니다'
42 미디어토크쇼 1부 '페미니스트가 사랑한 여성창작자'
43 성평등한 조직문화화를 위한 시범강의 '사건은 갑자기 터지지 않는다'
45 여성가족부 폐지안 규탄 집회 '성평등 민주주의의 후퇴 우리가 막는다'
토론회 '내 시간의 주인은 누구?: 종속과 자율 사이, 여성노동자의 시간주권 찾기'
48 미디어토크쇼 2부 '페미니스트의 마음을 사로잡은 481개의 빛'
48 공동기자회견 '이란 정부는 레카비 선수를 탄압해서는 안 된다'
45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 삭제 촉구하는 국회 앞 발언대 '우리의 연결될 권리를 보장하라'

11

04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여가부 폐지안을 막아주세요' 서명운동
06 민우 풋살리그 '우리가 국대는 아니지만'
47 여성노동연대회의 '여성노동자의 일자리 쟁투력 다시, 길게 보기' 토크쇼
48 이태원보도 관련 카드뉴스 '재난 앞에서 언론은 똑같은 문제를 반복했다'
48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촉구 서명운동 '일해라 복지부!'

나의 몸은

아직도

전쟁터

여성의 몸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던 적이 '없다' 재생산을 위한 몸, 노동해야 하는 몸, 건강한 몸인 동시에 또 보호 받는 수동적인 몸, 아름다운 몸, 성적으로 소비되는 몸... 여성의 몸에 얽힌 여러 상충되는 요구는 '정상성'을 요구하는 더욱 강력한 기제로 작동한다. '정상'이 아닌 몸은 부적절한 몸으로 나오될 뿐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몸에 대한 기록과 이야기는 지워진다.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 신체를 원하는 세계, 한편으로는 남성과 동등하게 일하고 성과로 입증하기를 요구하는 세계, '동일함'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이를 벗어나면 바로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세계에서 우리는 계속 이야기해야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이게? 세상에서 제일 바쁘다는 의대 교수한테 만날 바쁜 척하는 사람.” / “너 바쁜 거 맞잖아.” / “나 바쁜 거 맞나? 뭔가 계속 할 일이 있긴 한데, 실속은 하나도 없어.” / 몇 년 전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눴다. 그 며칠 전 재활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뇌성마비 장애의 특성상 근육 강직이 있고 근골격계의 균형이 맞지 않아 몸 여기저기에 통증이 찾아오곤 한다. 그 즈음 골반 통증이 좀 심해져 있었고, 의사는 통증 치료를 처방해 줬다. 하지만 몸이 훨씬 편해질 걸 알면서도 치료 스케줄 하나 더 잡히는 게 달갑지 않았다.

박은영 ● 공부하고 글 쓰는 장애여성, 장애인으로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아온 삶을 엮어 책 《소란스러운 동거》(IVP)를 냈다. 사회단체 ‘다른몸들’ 산하 모임 ‘질병과 함께 춤을’에서 6년째 다른 아픈 여성들과 함께, 다양한 몸을 가진 이웃들이 동등하게 존중받으며 함께 사는 길에 대해 수다 떨고 있다.



나의 아름다운 적진을 위하여

일러스트 © 엄재숙

“치료... 받아야죠.” 치료를 해주겠다는데도 한숨을 내쉬는 나에게, 의사는 “바쁘면 시간 될 때만 오라”며 토닥였다. 어느샌가 의사는 나를, 뭔지는 몰라도 뭔가 항상 많이 하고 돌아다니는 환자로 인식하게 됐다.

실제로 내가 한결같이 바쁘긴 했다. 이정표 하나 없이 길게만 뻗어있는 인생을 무엇으로 채워가야 할지, 불안도 크고 상념도 많아 가만히 있지를 못했다. 당연한 일 아닌가? 적어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다. 비슷한 또래에게 당연한 것이라면 나에게도 당연한 거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기를 바랐다. 그래서 의사에게도 늘 바쁜 티를 냈다. “내가 바쁜 건 당연한 것이니, 그 대전제를 부정할 생각일랑 말라”고. 쉬어야 한다거나 일을 줄여야 한다는 처방은 수용할 수 없다고. “내가 바쁘다는 조건하에서 당신은 내 몸을 돌보아야 한다”고 매번 못을 박은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헤매고 헤매 찾은 ‘글쓰기’라는 업은 내 통장을 채워주는 일은 아니었다. 글자 수를 따져 주어지는 원고료는 구상 시간까지 따지면 시급 계산하기도 민망한 정도였다. 투여하는 노동 시간과 나오는 성과를 비교했을 때, 글쓰기만큼 저효율을 기록하는 노동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

병원에 갈 때마다 매번 바쁜 척을 하지만, 사실 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모니터 앞에 멍하게 앉아있을 뿐이다. 매일 오전 10시쯤 출근해 앉아 있다가 오후 5시쯤 세 문장을 쓴다. 그러다 밤이 깊을 때쯤 두 문장을 지우고 퇴근한다. 참고로 글 안 쓰는 사람은 이상하게만 보일 테지만,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글 쓰는 인생들의 지극히 평범한 루틴임을 강조하고 싶다! 놀랍게도 이렇다 결국은 마감 3일 전부터 하루에 세 페이지씩 써서 마감에 맞추고야 만다.

노트북 앞에서 3일 동안 젤리를 씹어먹다 보면 어떻게든 서너 장짜리 글 정도는 나오기 마련이고, 그러면 며칠 치 밥 값 정도는 벌 수 있다. 그러니 젤리를 씹어 먹으며 노트북을 훑어져라 쳐다보다 밤이면 집에 가는 나도 바쁜 건 바쁜 겁니다, 의사 선생님. 이것도 나름 전문 기술이라고요. (누가 뭐래?)

골반에 스멀스멀 열이 오르고 오른팔이 빠근하다. 왼손으로는 키보드를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일한 생산수단인 오른팔을 특히 잘 돌보아 주어야 한다. 충분히 자고 일어나 아침에 운동을 다녀온다. 연구실 대신 집으로 돌아와 내 방 모니터 앞에서 끙끙댄다. 몇 시간 후 다시 골반이 쭈시기 시작하면 침대에 벌렁 누워 휴식을 취하다 다시 책상으로 돌아온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골반이 아프면 선 채로 자정까지 버텼고, 무릎과 발이 시큰거리면 요가 매트를 깔고 엎드려 키보드를 쳤다. 그러다 결국 팔꿈치와 손목으로까지 통증을 확산시키기를 반복했다. 실력 있고 빠릿빠릿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들에게마져 미친 듯이 달리라고 채찍질하는 사회에서, 뭐든지 느리고 한 문장도 쉽게 쓰지 못하는 나는 그렇게라도 살아남고 싶었다. 하지만 노동량에 따라 정확하게 반응하는 나의 몸은 “꼭 그들에게 맞춰야 하느냐”고, “정말 그래야 살 수 있는 거냐”고 푹푹하고 정당하게 따져 물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이유 있는 반항을 무시하는 데는 한계가 생겼다. 그렇게 나는 반강제로 내 몸을 조금씩이라도 존중해 보기로 했다. 물론 몸의 의견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은 매번 어렵고, 아직도 열 번 중 여덟 번은 실패한다. 통증이 느껴질 때 가만히 노동을 멈추고 운동을 하거나 누워 쉬기 위해, 스트레스로 머릿속이 몽롱해질 때 생각을 멈추고 노트북 앞을 잠시 떠나기 위해, 나는 나 스스로와 세상을 신뢰해 보기로 매번 작정해야 한다.

사실 장애여성인 나에게 ‘시간’이란 자원이 비장애인 남성에 비해 다섯 배쯤 더 필요하다. 실제로 작업 속도가 느리므로 일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많다. 또 한편으로는 장애여성이 주변 사람 사이에서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는 비장애인 남성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린다.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한 일꾼’으로 코스프레를 해도 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끝까지 나를 함께 일할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는 사람도 없지 않다. 내가 괜찮은 동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적고, 인정받는 데 걸리는 시간과 노동으로 결과를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다. 글을 쓰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프리랜서 장애여성이 맘 편히 쉬기 힘든 이유다.

내가 시간 내에 일을 끝낼 수 있으려면, 일이 내게 도착한 바로 그 순간부터 꾸준히 움직여야 한다. 꾸물대다 며칠 전에야 일을 시작하는 벼락치기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 글을 쓰거나 일하는 기간에는 TV 앞에 앉더라도 1시간을 넘지 않고 노트북 앞으로 돌아온다. 마감 3일 전부터 움직여도 ‘마감이 일을 해주는’ 기적은 내게 없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판타지도 당연히 나의 이야기가 아니다.

때문에 나의 전략은 늘 ‘성실함’ 하나뿐이었다. 혹시라도 제시한 시간에 일을 해내지 못하면 나의 성실함을 근거로 비장애인 중심의 업무 속도를 공격할 계획도 없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99.9%의 경우에는 세상이 아닌 나의 몸을 공격하여 기여이 마감에 맞추고야 마는 편이었다.

‘장애인은 함께 일할 만큼 충분히 강하거나 효율적이지 않다’는, 혹은 ‘치료 외에는 별 일상이 없을 거’라는 근거 없는 편견에 저항하고 싶었다. 장애가 있거나 아프면 치료하고 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남들 하는 걸 다 하면서 치료하고 운동하고 쉬느라 더 바쁘다고 계속 말하고 다녔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안간힘을 써서 결국은 비장애인과 건강인 중심의 질서와 속도만 지키고 있는 건 아닌지 역올해졌다.

그제야 둘러보니 내 곁에 비장애인은 나보다 좀 더 많거나 비슷한 양의 일을 하면서, 나보다 드라마도 많이 보고 덕질도 많이 하고 있었다. 모르는 드라마가 없고 매일매일 세상 돌아가는 뉴스도 챙겨보고, 거기에 추가로 독특한 덕질 아이템도 하나씩은 보유하고 있었다.

저녁 먹을 때 식사 시간에 맞춰 드라마 한 편을 30분씩 끊어보던 나로서는 상상도 못 할 풍요로운 삶이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불평등에 대해, 비장애인, 건강인을 대신하여 장애인과 질병인이 얼마나 큰 부담을 짊어지는지에 대해 말하고 쓰면서, 나는 그들이 누리는 삶의 질을 모두 놓치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글을 쓰다가 문득 침대에 벌렁 누워 빈둥댔다. 초고를 마치고는 드라마 세 편을 넷 놓고 보았다. 덕분에 글 마무리가 하루 이를 늦어지긴 했지만, 속도가 느리다는 강박 때문에 작업을 일찍 시작한 덕에 마감은 맞출 수 있었다. 이번에도 마감에 맞추고 나서야 생각했다. 장애인과 질병인이 꼭 유능하고 바빠야 하나? 내가 꼭 그들의 마감과 물량에 이렇게 만날 맞춰야 하나? 비장애인들이 두 손으로 일할 때 한 손으로 일하다 팔이 아파서 좀 쉬느라 마감이 늦었다고 말하지 못할 이유는 또 뭔가?

예전에 친한 동료들과 농담 삼아 이야기한 대로, 장애인과 질병인에 맞춰 마감과 물량을 정하는 사회를 상상해본다. 일의 성과와 기한 대신 드라마 편수와 휴식 시간을 정해 놓으면, 나도 덕질 하나쯤 새로 시작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삶에 좀 더 설레며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비현실적인 상상을 하는 글을 쓰다가 이번에도 일요일 자정이 다 되어 간다. 당연히 골반이 쭈신다. 다음에 병원에 가면 아파서 일을 못 하겠다고 엄살떨게 아니라, 아파서 드라마 완주에 방해를 받는다고 엄살을 떨어볼까 보다.

1986년 여름, 나는 필리핀 국적의 아버지와 한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당시 한국은 1948년에 제정된 부계혈통주의를 기본원칙으로 둔 최초의 국적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나는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없었다. 1997년이 되어서야 부모 양계혈통주의가 채택되면서 국적법은 전면 개정되었다. 그리고 몇 가지 조건 하에 선천적인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했으나 그 조차도 1988년 5월 4일 출생자부터 해당되었다. 국적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나는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없었다.

강술기 이주민센터 의정부EXODUS 활동가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의 딸로 태어나, 필리핀으로 이주하여 대학교를 마쳤다.
그 뒤에 나 자신이 이주노동자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일했고, 지금은 한국에서 이주민, 난민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나에게 '이주'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나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다.

내 몸에는

새겨진

'흔들'

국적을 부여받을 수 없는 몸

1986년 여름, 나는 필리핀 국적의 아버지와 한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당시 한국은 1948년에 제정된 부계혈통주의를 기본원칙으로 둔 최초의 국적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나는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없었다. 1997년이 되어서야 부모양계혈통주의가 채택되면서 국적법은 전면 개정되었다. 그리고 몇 가지 조건 하에 선천적인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했으나 그 조차도 1988년 5월 4일 출생자부터 해당되었다. 국적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나는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없었다.

1990년대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의 경우 혼인부터 친자관계까지 한국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고, 결혼함과 '동시에' 이주여성은 자동으로 국적도 취득할 수 있었다. 1997년 국적법 개정이 되며 이주여성의 자동국적 부여는 결혼 '2년 후' 국적취득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이주여성에게 쉽게 주어진 시민권은 이주남성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이주남성의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자격 또한 주어지지 않았다.

나의 어머니는 '순수' 한국인의 혈통을 가진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남성과 결혼한 여성'이라는 이유로 한국 법의 테두리 밖으로 내쳐지게 되었다. 여성호주(戶主)가 되었지만,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처럼 가족에 대한 권리를 동등하게 갖지 못했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음에도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없었고, 한국에서 살았지만 아무런 법적 보호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한국의 주민등록등본에 오를 수 없었고 한국인 어머니의 자녀임에도 나는 한국에 기록될 수 없었다. 우리는 가족을 구성하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한국은 우리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나의 아버지는 결혼 후에도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아 3개월마다 외국에 나가서 비자를 받고 재입국을 해야 했다. 어머니에게 여성호주(戶主)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와 결혼했음을 증명할 뿐 다른 권리는 없었다. 3개월마다 출국하고 재입국을 반복해야하는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인해 아버지가 정기적인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결혼 후 2년 이상을 거주'라는 국적 취득 기회는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에게나 가능한 것이었다. 한국사회는 이주남성의 노동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기본적인 생계유지조차 보장하지 않았고 이는 가정의 경제적인 빈곤으로 이어졌다.

존재하지 않는 몸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지냈다. 어머니는 내가 앞으로 어떠한 차별을 겪게 될지 몰라 경기도 양주 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결정한다. 그러나 3개월마다 외국을 다녀와야 하는 아버지와 가정의 경제적인 빈곤은 한국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었다. 결국 우리 가족은 또 다시 필리핀으로의 이주를 결정한다. 나는 4살 때 한국을 떠났다. 하지만 필리핀에서의 삶도 녹록치 않았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우리 가족은 3년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한국에 돌아온 아버지는 운 좋게 필리핀 대사관에 취직하며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가부장적인 시스템 안에서 다른 '인종'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은 가족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만 했다. 내가 초등학교를 입학해야 할 나이가 되었을 때 학교는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교육청을 찾아갔고 교육청에서는 나의 입학가능 여부가 학교 재량이라 대답했다. 어머니는 교육청의 답변이 담긴 공문을 들고 초등학교를 찾아가 교장선생님을 직접 만나 내가 입학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했다. 어머니가 찾아가는 곳은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전 학년이 한 반 뿐이었던 작은 시골 학교였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장선생님은 나의 입학을 허락했다.

나는 필리핀 사람으로 학교를 다니고 생활하며 지냈다. 국내 체류하는 필리핀 국적의 이주민이었다. 이제는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가입이 당연히 되지만, 당시에는 가입할 수 없었다. 나는 1년에 한 번씩 비자를 연장하며 체류만 할 수 있었을 뿐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아직도 기억이 난다. 내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기면 어머니는 내 친구에게 건강보험 카드를 빌려오라고 말씀하셨다. 병원에 갈 때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몸이 되었다.

'뿌리'를 숨겨야 하는 몸

시골에서 지내는 것이 차별을 덜 경험하며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어머니의 판단이 옳았던 것인지, 초등학교 시절 인종이나 피부색에 의한 차별 경험은 많지 않았다.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21명으로 구성된 한 반 뿐이었고 21명의 친구와 6년을 함께 했다. 보호자들도 서로 잘 알았고 나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 내가 기억하는 차별 경험은 아버지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주변인으로부터 받은 시선들이었다. 그들은 나와 아버지를 불편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우리에게 대해 수군거리는 것만 같았다. 나는 그때부터 나의 귀를 스스로 닫는 훈련을 했다.

어느덧 나는 무탈하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했다. 초등학교가 있었던 곳은 시골 마을로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시내로 나가야 했다. 한 반 뿐이었던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에는 정말 많은 학생이 있었다. 중학교 1학년 첫 시간에 담임선생님은 반 학생들에게 가족생활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했다. 그런데 보호자의 이름을 적는 칸이 한글로 세 글자만 쓸 수 있도록 매우 작았다. 당시 아버지는 귀화 전으로 매우 긴 이름을 갖고 계셨다. 나는 깨알 같은 글씨로 아버지의 이름을 두 줄로 작성해야 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반 친구들이 볼 수 없게 다른 친구들의 조사서 가장 아래에 넣어 제출했다. 필리핀 출신의 아버지를 숨기기 시작한 것이 그 작은 네모 칸에서 시작했다.

인종과 피부색이라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차별받기가 너무나도 쉽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 나의 정체성에 대해 당당해지거나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숨기게 되었다. 지금 30대인 내가 여전히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건 아버지를 숨겼다는 것과 필리핀 출신의 아버지를 '두었더라도' 나는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스스로 했다는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조건에서 어떠한 비난도 받지 않기 위해서 나 스스로에게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세워야만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어렸을 적부터 "이국적으로 생겼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식당에서, 길거리에서, 가게에서 "어디에서 오셨어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다문화같이 안 생겼어요"라는 말은 가벼운 낯선 인사말처럼 자주 들었다. 심지어 주변인들이 추측하는 나의 출신 국가는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인도, 중국, 파키스탄 등 나를 세계인으로 보았다. 이렇듯 다른 피부색으로 인한 일상에서의 미세차별은 늘 있었지만 심각하게 물리적인 폭력까지 경험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순수' 혈통 중심의 시민성과 정상성이라는 이념은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고 이는 실제로 제도적인 차별로 이어졌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쌓여온 미세차별과 제도적 차별 속에서 겪어온 무시와 배제, 거부에 이미 익숙해졌다.

혼혈여성의 몸

마침내 2003년 나는 주민등록등본에 오르게 되었다. 아버지가 체류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생계유지를 위해 결국 귀화를 선택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아버지가 귀화하면서 나는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다. 힘든 상황의 연속이었기에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지만, 그 결과 나는 우리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제하려 했던 한국 사회의 '국민'이 된 것이다.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며 법적 보호와 정치적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서류상의 기록일 뿐 나의 몸과 피부색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는 변화가 없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필리핀 이주민' 그리고 나는 '혼혈여성'이었다.

한국사회의 인종주의는 '인종'처럼 존재하지 않는 '혼혈'이라는 허상이 나타났을 때부터 존재한 것이라 생각한다. 혼혈이 '피부색'의 문제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피부색보다는 '혈통' 중심주의에서 시작되며 인종적 배타성이 드러난다. 매년 3월 21일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에 혼혈인 나는 저항의 의미로 현혈을 한다. 한국 사회의 부계를 중심으로 순수 혈통이 유지되는 방식에서 혼혈여성에 대한 배제가 존재해왔다. 분명한 인종주의적인 문제였으나 그동안 혼혈'아'로 불린 이들은 없는 존재로 가시화되지 않았고 이와 같은 문제는 '다문화 이주 아동' '무슬림 난민 아동' 등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른 인종 그리고 피부색을 가진 한 가족이 제도적 차별에 맞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어머니가 노력해왔듯, 일상에서 인종주의를 경험하며 자란 나는 끊임없이 나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하며 저항해왔다. 정체성에 대한 나의 혼란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을 벗어나 필리핀으로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나만의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매우 소박한 하나의 진실. 국적, 인종, 피부색 등 모든 것을 떠나 나는 한낱 지구인 중 하나라는 사실이었다. 물론 이를 깨닫기까지 성찰과 갈등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원고지 18매가 필요하다.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미 30년 전, 한국인의 몸이었지만 젠더, 인종, 계급 등으로 인해 다른 몸으로 분류되고 배제당한 어머니가 계셨다. 그녀는 누구보다 용기 있게 저항하며 살아왔다. 그런 어머니를 따라 나 또한 30년이 지난 지금, 인종과 피부색 그리고 혼혈이라는 이유로 배제당하는 다른 몸들과 연대하며 나만의 저항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드래킹² 잉을 시작하면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내 모습에서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당... 음... 체중 압박에서도 벗어났고...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 앞에도 나서는 걸 싫어했는데 요즘엔 완벽한 건 없고 그냥 미움받는 일이 생기더라도 웃어넘길 수 있게 됨. 꼭 드래킹을 해서는 아닐지도... 나이를 먹고, 정신병 치료 중이어서인지도... 그러나 내가 하루하루 더 나로서 살기 위해 드래킹이 중요한 것은 틀림없다. 드래킹이 나를 나이 먹을 수 있게 해준 것 같다.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게 해줬고... 미래의 일을 계획하는 방법도 알려줬지... 집은 지저분해졌지만... 좋은 친구다” 2021년 12월, 드래킹에 관해 쓴 개인적인 글이다.

아장맨 ● “아장맨”이라는 이름으로 퀴어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다.
 드래킹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시스젠더 게이 클럽 문화 밖의 드래킹 문화를 가시화하기 위해 ‘드래킹콘서트’, ‘티 나는 부처를 가시화시키고 애정을 드러내는 기획 ‘티부사진감상회’, 팟캐스트 <생방송여자가 좋다> 등을 동료들과 함께 기획하고 만들었다.



질 脫 드래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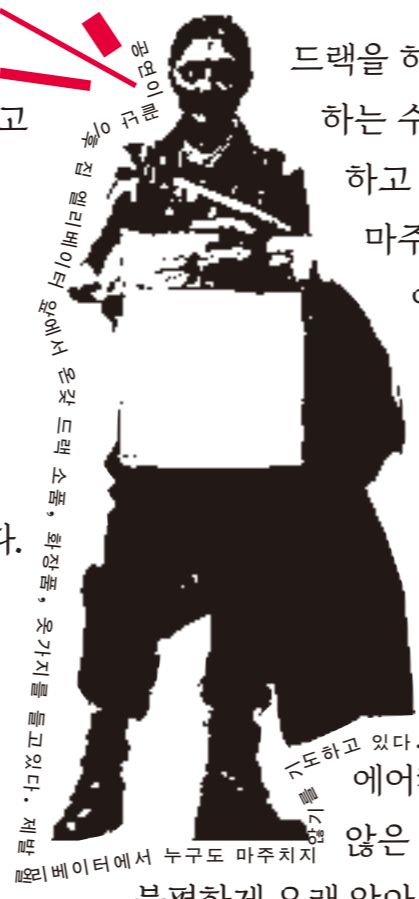


생물학적 성별에 기반하여 사회가 개인에게 기대하는 퍼포먼스에 반대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형태로 표출하는 행위 (출처: “내가 드래킹(Drag)을 하는 이유”, <https://www.11daro.com/8340>, 일다)
 남성적이라 여겨지는 행동, 패션, 역할 등을 가져와 연기에 활용하여 젠더 수행의 놀이적이고 연극적인 특성을 폭로하는 퍼포머

2022년 마침내, 드랙과 헤어질 결심

1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은 드랙과의 관계를 재정 의하고 싶다. 말이 좋아 재정 의지 회피에 중독된 나에게 있어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세한 말은, 그냥 '헤어지자' 네 글자를 뺄을 깡이 없으니 시간을 조금 끌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2017년부터 드랙을 시작하고, 2018년부터 시스젠더[※] 게이남성 클럽 문화 외의 드랙 문화를 만들고 싶은 사람과 모여 '드랙킹콘테스트'를 기획했다. 각종 클럽, 인권 행사, 미술관, 심지어는 카메라 앞에서까지 공연했다. 굳이 네이버에 내 드랙킹 이름 '드랙킹 아장맨'을 등록해 놨다. 드랙킹 콘테스트가 '변태짓'이 아닌 퀴어예술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판매 수수료를 떼이는 한이 있더라도 인XX크티켓을 통해 티켓을 팔았다. 미대를 졸업한 뒤 주변 사람에게는 "나 예술 포기했어"라고 말했지만 드랙에 얼마나 집착했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천지뻐까리다. 돈과 시간, 체력을 쏟아가며 '드랙킹'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싶어 했던 순간을 나는 외면할 수 없다. 수많은 여자들과 트라우마틱한 이별(…, 2013, 2014, 2015, 2016, 2021)을 하고 그들을 죽은 셈 치며 살아왔던 나지만, 이 이별(2022)은 다른 이별과는 달리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



드랙킹 콘테스트 포스터가 현재는 벽에 붙어 있는 모습. 드랙킹 통(9MM)을 극강(7)로 대관하여 1회, 2회를 1:1로 공연

드랙을 하고 무대에 올라가기까지 꼭 거쳐야 하는 수치심 행렬이 떠오른다. 드랙 하고 택시 타기, 현관문 앞에서 엄마 마주치기, 교회에서 돌아온 이웃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갇힌 채 어색한 침묵을 견디기, 그러다가 "연극 하는 분이신가요?"라며 어색하게 말 붙이는 것을 어색하게 받아치기, 땀에 젖어서 피부에 진득하게 달라붙는 가짜 가죽옷의 촉감을 견디기……. 가발과 머리 장식의 무게, 불편함도 짜증났다. 에어컨이나 히터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클럽 대기실에 소음에 시달리며 불편하게 오래 앉아 있을 용기도 나지 않았다.

나도 주말엔 브런치를 먹으며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브런치를 먹는 사람 앞에서 '드랙 브런치'^{##}의 퍼포머가 되면 수치심과 해방감을 동시에 느끼며 '나는 내 안의 여자와 화해하지 못해서 드랙을 하는 걸까?' 내 정체성을 고민한다. '내가 좀 더 여자 수행에 성공할 수 있는 예쁜 여자였다면, 그냥 여자인 상태로 만족하면서 살았을 테니 굳이 이런 힘든 길을 안 갔겠지?', '아, 나 지금 보수적인 레즈비언 연애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미끄러지고 있겠지? 그냥 여자 되기에 실패해서 생긴 반항심 때문에 드랙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그만하고 지금 당장 여자한테 시집가고 싶다' 이 속 시끄러운 상태를 감당하고 싶지 않았다. 드랙은 내가 자기혐오를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준 동시에 내 안의 자기혐오를 직면하게 했다.

“그래서 드랙 사랑 안 하십니까?”

쓰다 보니 너무 드랙 욕만 한 것 같다. 이러라고 글 쓸 기회를 주신 건 아닐 텐데. 뒤늦게 수습해 보겠다. 나는 드랙을 하면서 내가 평생 느껴보리라 기대하지 못한 감정,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 드랙을 한 날, 다른 자아를 빌려 일면식 없는 관객 앞에서 유두를 노출하고 춤추면서 받았던 순간의 강렬함은 계속 드랙을 하게 해준 원동력 중 하나다. 딸 부잣집에서 나이 터울 많이 나는 막내딸로 태어나자마자(1994) 남자 되기도 실패하고, 그렇다고 여자 되기도 실패한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을 방법을 드디어 찾은 듯했다. 엄마는 5분에 한 번씩 본인의 눈에 거슬리는 내 외모를 지적해내는 능력을 가졌는데, 무대에서 악에 받쳐 립싱크[●]하는 3분 30초 동안은 엄마로부터도 자유로웠다. (팟캐스트 '생방송여자가 좋다' 23화 참고)

문제는 내가 너무 딸로 키워져 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팸[■]으로 살고 있었다. (참고로 나는 십 대 시절 너무 부치 처럼 행동했다가 부치[□] 여자친구에게 잠수 이별을 당한 뒤로 자기 검열이 심해졌다) 조금만 방심하면 쇼에 어울리지 않는 곡선적이거나 소극적인 움직임으로 공연의 흐름을 망쳤다. 금세 겸손한 표정, 낮은 자존감이 스며 나왔다. 쇼에 어울리는 당당함과 광기를 얻어내기 위해 가슴을 까고 거만한 표정을 훈련했다. 일부러 턱뼈를 더 내밀고 눈을 게슴츠레하게 뜨면, 그 얼굴은 원래 나한테 없는 것임에도 정말로 존재하는 사람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내게 허락되지 않은 표정과 몸짓을 원래 타고난 '내 것처럼 꾸미는 것은 재밌었다. 익숙한 것을 버리거나 뒤틀고, 금기를 깨는 짜릿함이 영원할 것 같았다.

앞으로도 시끄럽고 과장될 나를 견여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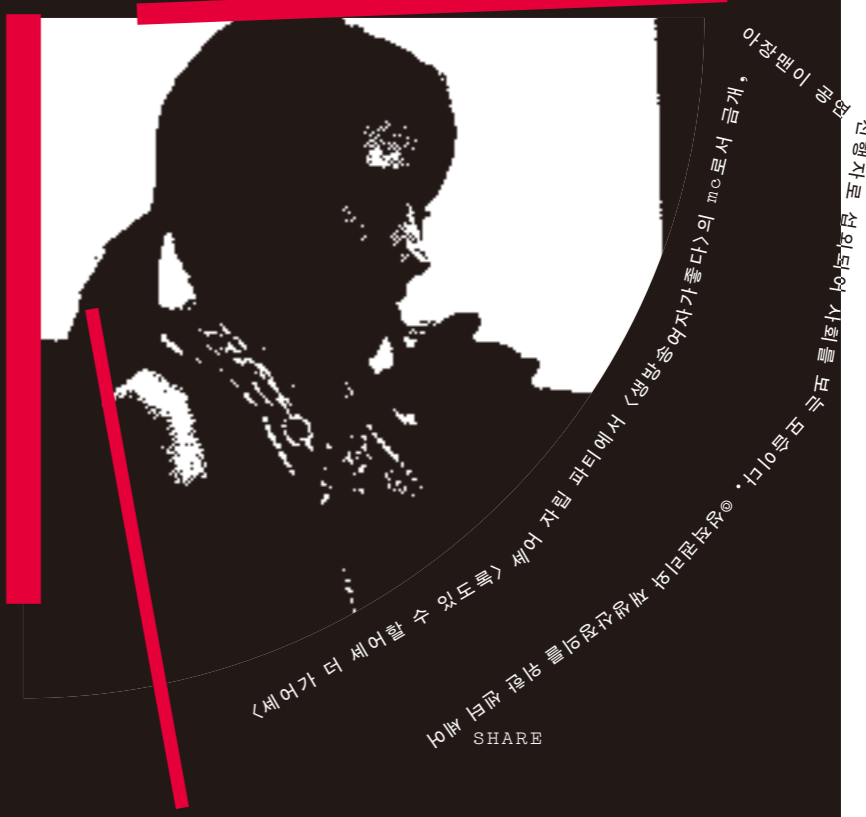
그렇지만 당연히 돈도 벌어야 하니 출근해야 했고, 그 간극 때문에 일상의 나를 감당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주말 내내 '드랙킹 아장맨'으로 무대에서 시선을 받으면, 월요일 아침 잠전한 옷을 입고 출근한 내가 더 불품없이 느껴졌다. 여자이기엔 부족한 부분을 불평하기는 멈췄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로 키워졌기 때문에 '완벽히' 남자일 수 없는 부분을 불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된 자기혐오의 시대를 이겨낼 만큼 드랙이 알려준 새로운 아름다움에 나는 중독됐다. 드랙킹 문화가 수면 위로 노출되고, 여러 사람이 그 아름다움을 납득하고 받아들이면 규범에서 미끄러진 나 같은 사람의 욕망(예를 들면 '티나는' '부치를 너무나 사랑하는) 또한 이해해줄지도 모른다는, 내가 좋아하는 게 메이저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나와 같은 욕망을 가진 사람끼리 커뮤니티를 만들면 그 안에서는 별 노력을 안해도 행복할 거라는 기대감, 실제로 드랙을 통해 만난 사람과 '사건'을 만들어 냈을 때의 뿌듯함, 외부인이자 내부인인 관객이 그걸 보고 남긴 집착적인 후기를 보고 느껴지는 두려움과 닮은 감정. 인조 가죽과 인조 보석들, 쇼를 위한 조명과 클럽 스탬프, 내 몸과 공연을 보러 오는 관객이 손에 쥐어주는 지폐와 무한 제공되는 술. 이 모든 것이 좋았다.

퍼포머로 불려갈 때마다 퀴어 커뮤니티에 필요한 일원이 되는 느낌이 좋았다. 내가 느끼는 혼란이, 내가 경험하는 정신병들이 '쇼'라는 형태로 전환되어 나타나면서 "의미 있다"고 인정받는 것 같았다. 쇼를 하는 순간에는 내가 완전히 내 존재에 대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 모든 형태 없는 공포와 혼란 또한 '쇼를 위한 것'이라며 나 자신을 다독일 수 있었다. 드랙은 정말 내게 많은 것을 줬구나. 위에서 너무 심하게 욕했던 게 미안해진다. 내가 미래에 다시 드랙을 할지 여절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드랙을 그만두더라도 드랙이 알려준 방식대로 계속 시끄럽고 과장된 방식으로 내 정체성을 노출하고 살려나. (코미디 팟캐스트 '생방송여자가 좋다' 많이 들어주세요) 그게 내 나름의 생존법인 것 같다.



이렇게 민망한 모습이... 나?

사실 '노력하면 아직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긍정 회로를 돌리기도 했다. 최근 몇 달은 들어오는 공연 문의를 쳐내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다. 쇼를 위해 분장을 하는데 눈물이 났다. 진짜 온 마음을 다해, 너무 하기가 싫어서 야기처럼 울었다. 내가 내린 선택을 감당하지 못하고 거울 앞에서 운다는 게 족팔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몇 달 전에 하겠다고 승낙한 일이라 당일 없을 수도 없었다. 스스로 쌍욕을 하며 후회했다. 울면서 얼굴에 클라운 화이트(특수 분장 재료)를 바르느라, 눈물 때문에 번지는 눈화장과 돌아가는 렌즈를 수습하느라 고통스러웠다. 한때는 무대에서 받는 환희를 기대하며 드랙용 화장품과 소품을 하나둘 사 모았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



이 장면이 공연 진행자로 성취의 자취를 볼 수 있는 순간. (세이가 더 세어할 수 있도록) 헤어 지킴 파티에서 (생방송여자가 좋다)의 퍼포머로 함께, SHARE

※ 지정성별(태어났을 때 지정받은 성별)과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일치한다고 느끼는 사람
 ## 브런치를 먹으며 드랙쇼를 보는 이벤트. 주로 해방촌 인근에서 많이 열린다.
 ● 드랙 퍼포머는 퍼포머의 신체적 특성을 숨기기 위해 립싱크(lip syno)를 공연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목소리를 숨기면 무대 위에서 특정 성별로 패싱되기가 쉬워진다.
 ■ femme(여성)에서 파생된 말이다. 그러나 실제 성별 이분법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여성'이란 개념과는 딱히 관련이 없는 듯...? 스펙트럼 양 끝에 부치(butch)와 팸이 있다고 생각하면 쉽다. 팸의 반대 개념으로서 스펙트럼의 끝에 있는 스톤 부치는 그 어떤 경우에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두가 건강을 위해 담배를 끊는 시대에도 연초를 태운다. 스펙트럼의 끝에 있는 팸은...장식적이고...아, 아닌가? 잘못 설명했다간 여성혐오로 얽혀질까봐 말하지 못하겠다. 시스젠더 이성 연애와 달리 성별만으로는 상대에게 어필 포인트가 되지 않는 레즈비언 연애 시장 속에서 본인을 효율적으로 어필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 butch(남자다운, 거친)에서 파생된 말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대표적으로 드라마 '오렌지이즈더뉴블랙'에 등장하는 캐릭터 빅부, 영화 '빌로우허마우스'에 등장하는 달라스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쉬워질 듯.

“춤추는허리 배우들의 무대 위의 다양한 몸이 튀어오른다/보조기를 한 다리/찌그러진 얼굴/구부러진 팔/크게 나온 배/발성을 위해 소리 지르는 입/관객을 응시하는 눈/보여지는 대상으로 존재했던/장애여성들이 이제는 배우로서, 내 몸을/내가 전시한다”
(2018,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춤추는허리 전시작품 ‘일평단심2’ 중에서)

김미진 ● 장애여성공감 극단 춤추는허리
장애 여성 배우

장애 여성의

관점을

무대

일상

광장에서

확장하는 노동

요즘 장애여성공감(이하 '공감') 극단 춤추는허리(이하 '춤허리') 공연 '빛나는'의 연습이 한창이다. 다양한 장애와 상황에 놓인 배우들이 각자 몸에 맞는 소리와 움직임을 탐구하며 동선을 만들고 있다. 장애가 진화하며, 그리고 나이 들어 변해가는 서로의 몸 상태를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하기보다 어떻게 함께 활동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역동을 나누고 있다.

활동의 기반은 사람

"나는 중증 장애여성이기도 하고, 언어장애가 있는 여성이기도 하다. 내가 일상이 아닌 공연을 위해 대화하고 관계를 맺기까지 동료들의 역할이 중요했다. 사회에선 '실패'라고 말하지만 나는 '실패는 경험'이라 말하는 사람의 곁에 있었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고, 나 역시 이런 활동을 함께 해나가는 이 공간을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2019, 문화다움기획상131 심포지엄, 서지원)

나의 몸은 섹슈얼리티 권리에서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경험(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성적 대상화) 혹은 내 삶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교육·직업 선택과 기회 등에서의 배제), 장애로 인한 차별과 배제, 여성으로서 받는 차별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주도적인 삶을 쟁취한다는 건 장애여성에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사회적 자원과 타인의 조력이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쉽게 내 몸을 간섭하는 명분이 된다. 내 몸은 보조기를 착용하는 경증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한계가 분명하다. 이런 한계 속에서 나는 부정당하고 노동자로서 불인정 된다. 몸의 차이와 장애에 자긍심을 갖고 이 몸을 통해 생산할 수 있는 가치와 노동을 모색하는 고민은 '공감'에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과정, 그리고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제안하고 공유하며 공간과 시간, 관계를 조직하고 끊임없이 함께 방법을 찾았던 것이 '춤허리'에서의 시간이었다. 나는 13년째 끊임없이 폭풍우가 치는 '춤허리'라는 배에서 같이 흔들리면서도 새롭게 단단하게 활동하고 있다.

노동과 자긍심

'춤허리' 극단 배우로 활동하게 되면서 내 삶에 '장애여성배우' 라는 구체적인 정체성이 추가되었다. '공감' 안팎에서 자기소개할 때마다 "장애여성공감 극단 춤추는허리의 배우 김미진입니다"로 첫 마디를 시작한다. 나뿐만 아니라 동료 배우도 그랬다. 명확한 소속과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 위치를 가졌다는 건 삶의 큰 지지대가 세워진 것이었다.

삶의 긴 시간 동안 소위 사회에서 말하는 '직장'에 진입하기 어려웠고, 노동자로 인정받은 경험이 없었다. 불인정 되는 시간 속에서도 나는 분명 끊임없이 노동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20대에는 가족 조각을 이어붙여 한 장으로 만드는 일을 했었다. 받은 돈으로 동생에게 중고 자전거를 사주게 되면서 일에 대한 희열, 돈을 버는 즐거움을 느꼈지만 내 일은 직업으로 불리지 못했다. 이후 장애 특성상 선택하게 된 것은 한복 만드는 일. 집에서 한복 그림을 그려서 납품하던 일을 했을 때도 직업이 아닌 부수적인 부업으로 불렸다.

춤허리에서 일상을 통해 내가 '노동자' '배우' '여성'이 될 수 있게

그간의 시간을 거쳐 '춤허리'라는 곳에 소속감을 느끼게 됐다. 배우, 연출, 팀장, 조력자 등등 변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제안받으며 동료의 인정과 날 선 비판을 주고받았다. 결코 쉽지 않았다. 내가 나서기 위해 무엇을 인정해야 하는가, 깨져야 하는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진통과도 같은 고통으로 왔다. 그럼에도 나는 그리고 우리는 사회적 안정감과 함께하는 동료들 만들 수 있었다. 내가 오롯이 나서서 있을 수 있는 활동의 공간. '공감'은 몇 년 전부터 '춤허리' 배우들이 반상근과 상근 구조를 선택해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시도했다. 함께 이 물결에 요동치며 자긍심을 지니며 살고 있다.

무대와 일상

다양한 장애여성이 자조 모임을 통해 모이고 몸의 이야기를 나누다, 차별과 배제에 분노하다,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고 싶어 했다. 누군가 연극을 해보자고 했고, 진짜 연극을 했다. 배우가 겪은 차별 경험이 공연 기획부터 주제, 목적, 목표, 내용에 반영된다. 발달장애를 이유로 통장개설을 거절당했던 경험과 일을 함에도 내 통장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했던 이야기, 아이를 돌봄에도 불구하고 장애여성이라서 양육자 역할을 인정받지 못했던 내 삶의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가 되어 대본으로 쓰이고, 노동이 되고 예술이 되었다. 일상과 무대가 이어지는 것, 그리고 이어지다가 이어지지 않는 갈등과 긴장 속에서 내 일상이 계속 깨지고 변화하는 건 너무나 큰 역동이다.

장애여성의 독립과 탈시설 권리에 대한 극 '빛나는'을 연습하며, 나를 존중하지 않는 이에게 침묵하는 순간을 떠올린다. 나는 왜 저항하지 않았던가? 못했던가? 이 불쾌감은 왜 발생하는 걸까? 당당하게 독립을 말하는 '은수'라는 배역을 당당하지 못한 내가 무대에서 재현하는 것이 맞나? 이런 일상과 무대의 격동이 솔하게 부딪친다. 일상이 무대로 이어지지만, 무대가 꼭 일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무대가 그저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분투한다.

또 배우로서 전문성을 만들기 위해서, 연극 무대에서 '비장애'인의 몸을 흉내 내지 않기 위해 긴장한다. 무대 위에서 서두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호흡하며 소리 내고 움직이기 위한 우리만의 방식을 찾고 연습한다. 내 몸과 연결된 공간과 관계에서 서두름 없이 인지하고 표현할 수 있기를 갈망한다. 무대는 처음과 끝이 정해져 있어서 그 장소와 공간, 시간 안에서만큼은 딱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 안에서만큼은 내가 너무 명확해져요 ."

내가 계획한 '나'로 살 수 있죠!"

'춤허리'에서의 노동은 개인적 경험이 어떻게 공적 활동에 이어지는지, 어떻게 삶을 바꾸고 일상을 변화하게 하는지 알 수 있게 한다. 극단 춤추는허리는 문화예술 운동을 통해 장애여성의 현실을 '온몸'으로 드러내며 결국은 모두가 평등한 공간과 관계, 역할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질문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일상을 변화시킨다. 이를 위해 오늘도 익숙하지만 낯선 몸을 이동시켜 연습 공간을 향해 간다.

활동가 영지, [2022-07-07 오전 10:27]

여러분~ 저희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행진할 때 들 것발 문구를 추천받습니다!
아무말 해주세요~ 예) 퀴어x페미니즘...
우리는연결될수록..강하다...

활동가 노새

한국퀴어민우회

활동가 온다

한국○○민우회

활동가 노새

퀴어페미니즘



활동가 윤소

여기에 있다

활동가 노새

야나두

활동가 류

야너두? 야나두!

활동가 베리

'여기에 있다'로 모아지고 있어요 사무실은..

활동가 노새

여기에 있다 노우...

활동가 베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반박의견을 게재하십시오

활동가 꼬감

여기에 있다..노 2

활동가 윤소

왜여.....

활동가 베리

토론이다! 불타오르자!

활동가 꼬감

2000년대 초반 여성단체 책제목..

차라리 여기요

활동가 온다

여깁음

활동가 보라

자꾸 요기요 생각난단 말이에요ㅠㅠ

활동가 베리

여기요 저기요

활동가 꼬감

여기에 있다는 마치 '퀴어, 여기에 있다'
느낌이라 모르겠어요. 혼란스럽게 울드해요.

활동가 온다

민우회를 빼자고 한 거예요~!

활동가 제이

(민우회 들어가는거 조인데...)

활동가 베리

여기요가 괜찮은 것 같네

활동가 꼬감

민우회 들어가는거 좋은데...22

활동가 윤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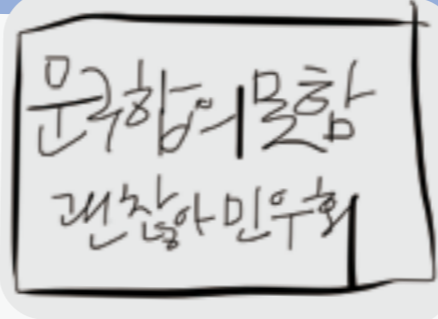
-----절취선

활동가 제이

ㅎㅇㅇㅇㅇ

활동가 노새

제발 민우회 좀 넣으세요 여러분..



활동가 수달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활동가 꼬감

좋다

활동가 베리

너무 좋아

활동가 제이

대박

활동가 수달

이거 제발 하면 안되나요

활동가 베리

찬성입니다

활동가 온다

민우회 들어와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봄

활동가 보라

민우회 들어간다는 점에서 찬성!!!

활동가 윤소

다만들었어요



활동가 노새

민우회 넣어주세요... 제발...

활동가 보라

아니이ㄷㄷㄷㄷ 누군지
어케아냐고요ㄷㄷㄷㄷㄷ

활동가 노새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활동가 보라

이럴거면 것발 왜 만드냐고요ㄷㄷㄷ

활동가 노새

우리집 주소 안 알려주고 옆집 주소
말하면서 찾아오라는 이야기 이제 그만..

활동가 베리

문구합의못함
괜찮아 민우회 ㄱㄱ

활동가 노새

저라면... 문자후원 번호까지 넣음
민우회 #2540-3838

민우회 무조건 들어가야함

퀴어 문화축제

깃발이 없는 민우회는 집회때마다 회원들에게 모임 장소를 설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ex. 저희는 녹색당 깃발 옆에 있어요...) 2년차 활동가인 저는 민우회에 왜 이렇게 깃발 논쟁이 계속되는지 궁금해서 2008년부터 활동한 활동가 꼬감을 찾아가 깃발에 대한 이모저모를 질문했습니다

행크

아니, 왜 깃발 만드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지요?



꼬감

'깃발 꽂는다'는 운동 사회 문화가 있잖아요. 예전엔 집회에 가면 그 깃발 아래 같이 서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되게 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깃발은 옆으로 비키라고 하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 안 보인다고. 저도 민우회 와서 그런 논쟁을 알게 됐어요.

행크

깃발에 민우회 이름이나 로고를 쓰면 간단한데 안 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꼬감

여전히 민우회 안에서 논쟁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실무적인 이유로 '깃발을 들자'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광장이 더 열려 있으려면 단체 이름으로 정체성을 드러내기보다 다양한 문구로 참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집회를 많이 할 것 같잖아요? 다들 재밌는 문구로 각자의 깃발을 들고 모이면 좋겠어요.

결국 농담반 진담반으로 '문구합의못함'이라는 문구를 정하게 됐지만(?) 이마저도 아래 '한국여성민우회'를 넣느냐 마느냐로 논쟁의 끝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쿠퍼를 앞두고 오래된 수납장에서 발견된 '퀴어페미니스트' 깃발을 발견하는 바람에(?) 환경을 생각했을 때 깃발이 있는데 굳이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냐.. 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태양

사무실 한 편에서 2018년 제작한 '퀴어페미니스트' 깃발이 발견됐다



지난 9월 29일 성평등미디어팀은 대통령 선거 기간의 보도 모니터링을 위해 '구조적 성차별'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다루었나?를 가렸다.

윤석열은 선거 기간에도, 당선 이후에도 반 페미니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던 발언이 이러한 행보를 보여준 이유를 보여준다. 언론은 이 발언을 얼마나, 어떻게 검증했을까?

선거 결과는 바뀔 수 있었을까?

대통령을 보기 싫어서 정치 뉴스를 외면하고 싶어질 때마다 대통령 선거기간을 돌이켜 생각해볼게 된다. 의미 없는 일인 것은 알지만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이 있지는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를 덜렁 SNS에 올렸던 것,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했다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던 것, 세계 여성의 날에 무고죄 처벌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를 다시 SNS에 올렸던 것 등 분노스러웠던 순간이 떠오른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다가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는 말이 떠오른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시도하는 정치인은 있었지만,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거짓 주장을 내놓고 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 그때 제대로 후보 검증이 되었다면 역대 최악의 성차별 대통령을 마주하게 되는 일이 없었을까?

대통령이 보기 싫어 정치 뉴스를 외면하고 싶지만...

구조적 성차별, 언론은 어떻게 다루었나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발언은 페미니즘에 대한 무지, 성인지 감수성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었던 발언이다.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대통령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발언은 충분히 검증됐어야 했다. 성평등미디어팀은 언론이 이를 충분히 검증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말했던 한국일보 인터뷰 기사가 보도된 2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일간지 11개와 경제 일간지 7개의 언론을 모니터링했다. '구조적 성차별'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기사 478건의 보도 유형, 필자 유형, 프레임 유형 등을 분석했다.

모니터링 결과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명백한 거짓말을 검증한 언론은 많지 않았고, 단 한 건의 검증 기사도 없었던 언론사도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478건 중 202건(42.3%)의 기사는 ㄹ "구조적 성차별 없어" ㄹ "성평등 수준 낮아"(국민일보, 2월 7일), ㄹ "여성 불평등 취급은 옛날 얘기" vs ㄹ "윤석열 인식 유감스러워"(한국경제, 2월 7일) 등 후보자, 정당의 발언을 인용한 기사였다. 이는 정치 기사, 그중에서도 선거 기간 기사의 문제로 지적되는 '따옴표 저널리즘'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다. 선거 기간 후보와 정치인의 발언은 필요한 정보이지만 반복되는 무분별한 받아쓰기 보도는 뉴스의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구조적 성차별'을 둘러싼 각 후보와 정당의 발언을 받아쓰기하는 기사는 페미니즘을 정파적 문제로 축소하는 효과를 결과를 낳는다. 이와 같은 보도보다는 대선 기간 불거졌던 젠더 이슈의 배경 설명, 원인 탐사, 미래 전망 등에 심층적인 보도가 필요하다.

성평등한 보도를 하는 언론사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반면 구조적 성차별의 증거를 제시하고, 대통령의 젠더 인식을 본격적으로 파고든 기사도 있었다. 반 페미니즘과 차별·혐오를 비판하고, 사실·칼럼·논평을 통해 주장을 뚜렷하게 드러낸 언론사는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였다. 이들 언론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차별적 행보, 대통령 선거기간의 차별·혐오를 적극적으로 비판했다. 이러한 보도가 가능했던 것은 네 곳의 언론사가 성평등한 보도를 고민하고 실천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한겨레, 경향신문은 젠더 데스크를 운영하고, 한국일보, 서울신문은 젠더 담당 기자라는 보직을 따로 두고 있다. 모니터링을 통해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도 이들이 주요하게 역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니 그런데, 서울신문 왜 그래요?

얼마 전 서울신문이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를 옹호하는 사실을 썼다는 것을 알게 됐다. 10월 6일 발표된 여성가족부 폐지 방향을 담은 행정안전부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한 사실인데, 여가부를 폐지하고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운용의 묘를 살리라는 내용이었다. 1월에 "젠더 공약이 남녀 불필요한 대립 낡아선 안 돼"라는 사실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20대 남성의 표심을 겨냥한 '남녀 갈라치기'라는 점을 지적해놓고 9개월 만에 갑자기 여성가족부 폐지를 옹호하다니... 그동안의 성평등 보도를 위한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 아니길 바라며 서울신문을 앞으로도 지켜보아야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차별적 행보는 계속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정부의 성차별을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일부 언론의 노력만으로는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비판적 감시도 역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보기 싫어 정치 뉴스를 외면하고 싶은 마음을 다스리며 오늘도 TV를 켜고, 인터넷 뉴스를 살펴본다.

지난 10월 6일,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계획일 뿐이고 국회를 통과해야 여성가족부를 폐지할 수 있다.

여소야대 상황이고, 야당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 전망하기 어렵다.

10월 6일 일부 언론에서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된 것처럼 오인케 하는 헤드라인을 사용했다. 헤드라인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는 고질적인 언론의 문제를 반복했다.

- 세계일보 6월 21일 네이버뉴스
- 여가부 폐지 후 복지부 산하 본부로 재편
- 매일경제 6월 21일 네이버뉴스
- 여가부 폐지하고 어떤형 신설은 보류
- 조선일보 5월 21일 네이버뉴스
- 21년 만에 긴장 내리게 된 여가부
- 중앙일보 6월 21일 네이버뉴스
- 여성가족부, 21년만에 폐지. 업무는 복지부-고용부로 넘긴다

사실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옹호하고 나선 언론도 있었다.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젠더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던 서울신문이 폐지를 옹호하고 있는 것은 충격적이다.

- 조선일보 10월 27일 1면 5월 21일 네이버뉴스
- [사설] 정부조직 개편, 野는 협조하고 尹은 유연한 자세를
- 중앙일보 10월 31일 1면 4월 21일 네이버뉴스
- [사설] 여가부 폐지 포함한 '尹정부 조직개편' 신속 조처해야
- 서울신문 10월 27일 1면 5월 21일 네이버뉴스
- [사설] 여성가족 업무, 부처 간 협업과 운용의 묘 살리길



국회의 중심에서

'가족'이 대체 뭐길래

"서로의 부모 돌봄 일정을 생활공동체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는 돌봄 공동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10년 동안 아이의 주 양육자 역할을 하는 남편"

"가족'과 '결혼'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진 채로 평등한 관계와 돌봄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비혼 공동체"
"재미없는 농담도, 짜증도, 후임도 들으면서 일상을 함께 보내는 동거인과 세 가족 중 가장 귀여운 고양이 울목이"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의 삭제를 촉구하는 국회 앞 발언대 "우리의 연결될 권리를 보장하라!"에 참여한 발언자들은, 각자가 삶에서 함께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했다. 이 모든 선택이 법적 혼인과 혈연관계의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도적인 차별 아래 놓여 있다면, 그 사회는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

힘센 법부터 똑똑똑!

'가족'의 범위를 혼인·혈연관계에 한정하여 좁게 정해두고 그 '법적 가족'에게만 서로를 돌보고 부양할 책임과 특권을 주는 사회제도는 너무 많지만, 이러한 법과 제도는 대체로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정의 규정을 끌어오거나 비슷하게 따라 쓰고 있다. 게다가 조례나 규칙, 지침상의 가족 규정은 상위법인 법률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핑계로, 대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 하는 실정이다. 결국, 가족을 정의하는 가장 센 법인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을 먼저 두드려야 했다. 그 중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 정의 규정 삭제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정안이 2건이나 이미 발의된 상태니, 법 개정 운동의 시작점으로 삼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규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의 삭제. 가족 개념 확장을 위한 법 개정 운동의 핵심 의제는 이렇게 결정되었다. 9월에는 토론회, 10월에는 국회 앞 발언대를 열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분위기 파악 좀 해라!

토론회 준비가 한창이던 9월 24일, 가족 개념의 확장을 바라는 사람들을 맥 빠지게 하는 소식이 보도 되었다. 작년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 마련을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의 정의와 '건강가정' 등의 용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여성가족부가, "소모적 논쟁을 지양"한다는 이유로 가족 규정을 현행유지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기대하게 해놓고 배신하는 일만큼 나쁜 짓이 있을까? 무엇보다 존재하는 시민의 삶을 존중하고 지지하기 위한 변화를 정부기관이 소모적 논쟁으로 치부하다니! 하지만 어찌면 기회일지도 몰랐다. 여성가족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계기로 협소한 가족 규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문제의식이 끊어오르기 시작했다.

"야 너두?" "야 나두!"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발견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협소한 가족 규정으로 인한 소외와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의 삭제를 촉구하는 국회 앞 발언대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가족 정의의 변화를 추구해 온 사람이 모였다. 비혼 동거가족, 동성 부부, 주거/돌봄 공동체, 반려동물 가족과 같은 다양한 모습의 관계와 공동체를 꾸리고 있는 시민은 각자가 선택한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협소한 잣대로 이러한 관계를 함부로 재단하고 차별하는 제도가 왜 불합리한지 이야기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 가족 정의가 변화할 필요성을 주장해 온 단체 활동가, 관련 정치 활동을 해 온 정치인의 발언도 이어졌다. 페미니즘, 재생산권, 한부모가족 권리, 청소년 주거권, 가족구성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돌봄, 장애, 교육, 노동... 가족 정의 규정과 얽혀 있는 문제는 깜짝 놀랄 만큼 많았다. 혼인·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생각에 국민의 69.7%가 동의하고, 비친족가구 구성원의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한 한국 사회의 현실을, 익명의 통계 수치가 아닌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생각하고 관계 맺는 시민들의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우리의 '연결될 권리'를 보장하라!

혼인·혈연·입양이라는 기존의 가족 구성 요건을 신중단지처럼 모시는 어떤 사람들은, 가족 개념을 확장하는 활동이 가족을 해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양한 입장에서 가족 정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이 활동이 무언가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해가는 일이라는 확신이다. 여러 사람이 이미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었다. 오히려 혼인·혈연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러한 관계를 끊어놓고 있는 것은 협소하고 차별적인 법적 가족 규정이다. 더 많은, 더 평등한, 더 행복한 연결을 위해 법적 가족 규정을 바꿔 가는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의 연결될 권리를 보장하라!
혼인·혈연·입양이라는 기존의 가족 구성 요건을 신중단지처럼 모시는 어떤 사람들은, 가족 개념을 확장하는 활동이 가족을 해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양한 입장에서 가족 정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이 활동이 무언가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해가는 일이라는 확신이다. 여러 사람이 이미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었다. 오히려 혼인·혈연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러한 관계를 끊어놓고 있는 것은 협소하고 차별적인 법적 가족 규정이다. 더 많은, 더 평등한, 더 행복한 연결을 위해 법적 가족 규정을 바꿔 가는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연결될 권리를 외치다



윤소 온다

윤소 온다 • 어느 민우회 성평등복지팀, 가족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 새로운 연결이 '온다'!

윤소 온다 • "You aren't supposed to move here. You're just a nook." "There are no rules! I'm gonna get you!" "야! 너는 여기서 못이잖아" "규칙따윈 없어! 너한테 갈 거야!"

윤소 온다 • "You aren't supposed to move here. You're just a nook." "There are no rules! I'm gonna get you!" "야! 너는 여기서 못이잖아" "규칙따윈 없어! 너한테 갈 거야!"

윤소 온다 • 어느 민우회 성평등복지팀, 가족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 새로운 연결이 '온다'!

이런 포부가 갑자기 찾아온 것은 아니다. 2012년부터 '공생의 조건: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 토론회를 진행하고 2018년 '누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니까 ___이/가 직접 만드는 조직문화' 워크북을 제작했다. 그리고 조직문화와 공동체 내 성폭력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만드는 조직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다.

올해 다시 조직 내 성평등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전히 조직 내 성폭력이 '가해자 개인'의 문제로 소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은 사회적 관계, 문화, 권력의 역동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간단하고 단일한 방법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성폭력을 가능케 하는 문화와 역동이 있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들과 성평등한 조직문화에 대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건은 갑자기 터지지 않는다'고 말을 건네는 것이 포부 달성을 위한(1) 올해의 흐름이었다.

왜 성평등이어야 하는가?

이미 성평등을 고민하는 사람은 "어찌 평등에 이유를 붙이냐"고 하겠지만, 실제 조직 내에서 이 질문을 받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무엇이 성평등한 조직을 만들고, 구성원은 어떤 상황에서 성평등하다고 느끼는지를 조사했다. 대중 설문조사에서 '성평등한 조직은 어떤 곳'인지를 묻고 그 응답을 분류했다. 응답자 178명 중 20.2%가 "여성/남성 구분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로 일할 수 있는 현장", "특정 성별이 아닌 이름과 역할로 호명되는 곳" 등 성별 고정관념이 없는 곳을 성평등한 조직이라 생각했다. 두 번째로는 16.9%가 "동등한 임금과 대우를 받는 조직", "누구든 수저를 놓을 수 있는 조직" 등을 꼽아 성차별 없는 조직이라 응답했다. '여성'이 아닌 '동료'로서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이야기다. 성평등하지 않은 곳의 풍경을 보면 성평등한 조직의 상이 조금 더 뚜렷해진다. 본인의 조직이 성평등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52.8%)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그 이유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이처럼 성평등하지 않다고 느끼는 장면은 제도부터 문화까지 조직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내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평등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조직. 이는 안전과 연결된다.

"조직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때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희롱 발언이 일어날 수도 있는 회식 자리에 꼭 가야 내가 기회를 얻는다거나, 성인지감수성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담배를 피워야만 회사 내에서 입지가 생긴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고요" - 개인 인터뷰 중

"결혼했니?', '아이는 안 낳냐?' 이런 식으로 말하다가

'영덩이도 큰데 왜 결혼 안 하나'라는 성희롱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 그룹 인터뷰 중

"조금 불쾌하거나 미묘한 회색지대의 일들, 작은 이상함을 용인하기 시작하면

그게 문화가 되고 이상해진 문화에서는 범죄가 일어나기 쉽다고 생각해요" - 개인 인터뷰 중

조직문화는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 허용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 사이의 경계, 사람에 대한 평가와 인정의 기준, 일상의 놀이문화 등 공동체의 모든 것으로 구성된다. 사건은 갑자기 터지지 않고,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나아가서는 개인의 역량을 펼치고, 평등한 공간에서만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성평등해야 한다. 결국 성평등한 조직문화는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조직에게도 좋은 방도가 아닌가(1)

어떻게 성평등해질 수 있을까?

지금도 사람들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성평등 실천을 해보았다는 22명은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떠도는 말에 가담하지 않는 실천"을 하고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호칭을 빼고 부르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잘못된 것을 바로 지적한 19명은 누군가 불편한 농담을 했을 때 "웃지 않고 선을 넘었다고 정색"하기도 했다. 공식적으로 문제제기(11명)를 해 "성추행 후에 가해자를 옹호하는 임원급을 같이 신고"하고 "탈의실이 없어 여성 직원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탈의실을 제안"하기도 한다. 아쉽게도 이러한 실천이 모든 조직에 통용되지는 않는다. 갑자기 큰 변화를 만들어낼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시도는 변화의 가능성을 만든다. 다양한 곳에서 성평등한 조직문화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성평등을 만들어가는 근육이 생기고 있었다.

"고충처리위원회 담당자는 3년 임기고 돌아가면서 해요. 전체 활동가 중에 경험한 사람이

한 1/4정도 되면서 조직 안에 역량이 쌓였어요. 매년 성공적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실패 경험도 결국은 쌓이는 것 같아요." - 그룹인터뷰 중

각자의 시도와 더불어 더 많은 조직에서 성평등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내년에 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성평등 조직문화 표준강의안'을 보완해 배포하려고 한다. '성평등한 조직을 늘려버리겠다'는 포부가 현실이 될 때까지 언어를 모으고 공유하는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가 보 자 고!

성평등 조직문화 [시도:레] 성평등 조직문화가 '시도'되고
 성평등 조직문화가 당연한 세상이 '포래'하길 바라며 2022년 한국여성민우회
 대중 설문조사 △'어디까지 해봤니?': 조직문화 변화에 고민하는 사람들, 그룹/개인 인터뷰 △표준강의안 제작
 강의 및 작은 전시 손으로 진행됐다. '표준강의안'을 만들기까지 대중
 설문조사에서 178명, 비영리/영리 영역을 포함해 그룹 인터뷰에서는
 4개 그룹에서 19명, 개인 인터뷰에서는
 인터뷰이 5명의 이야기를 들었다.
 성폭력상담소

성평등한 조직문화

약자

‘약자생존’의 사회에 미리 가 있는 사람들

생존

9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약자생존: 약한, 아픈, 미친 사람들의 광장’은 ‘다른몸들’, ‘신경다양성지지모임 세바다’(이하 세바다),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가 함께 만들었다. ‘약자생존’을 통해 적응한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적자생존’의 세상에 질문을 던지고, 약자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약자생존’의 사회를 말하고자 했다. ‘비정상’이라 밀쳐지고 배제되는 모든 존재를 위한 광장, ‘비정상’으로 낙인찍힌 이들이 정상으로 승인받지 않아도 모두가 온전히 평등하게 존재할 수 있는 광장을 준비했다.



느릿느릿하고 돌아버린 행진

초록색 잔디 광장에 놓인 빈백에 세상 편한 자세로 누워있는 사람들, 못자리에 앉아 자신의 아픈 몸에 대해 말하면서 바느질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미친년’에게 100송이의 충천연꽃과 사랑과 연대를 담은 편지를 남기는 사람들, 각각각색의 비즈를 약봉지에 담아 나만의 약을 제조하는 사람들, 나와는 상관없이 내게 붙이는 정체성의 이름과 진단명을 부수고 스스로 이름을 짓는 사람들, 나를 미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외치는 사람들, 울지로 도로 한가운데에서 손담비의 ‘미쳤어’를 들으며 도는 사람들, ‘저항이 나의 쓸모’라는 피켓과 꽃을 들고 아주아주 느리게 행진하는 사람들. 9월 24일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약한, 아픈, 미친 사람들의 광장: 약자생존’에서 볼 수 있었던 장면이다.

연대의 자리에서도 밀려난 비정상들이 결집한 곳

‘약자생존’은 ‘다른몸들’, ‘세바다’ 그리고 ‘민우회’ 세 단체가 도원결의(?)를 맺어, 반년간 만났다 하면 하루 3-4시간은 똑딱 해치우면서 회의에 회의를 거듭해 기획하고, 각종 실무와 씨름하며 만들어졌다. (어떤 실무를 했는지 민우회 홈페이지를 통해 약자생존 후기를 보면 알 수 있다.) 씨름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광장에 모인 모두가 무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자기 모습대로 존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였다.

“매일매일 먹어야 할 약 알 수를 세어야 하는 약자들의 생존 스토리 파티”, “장애와 질병이 있는, 체력은 저절이고 속도는 느린 우리”가 “시시각각 변하는 몸 상태와 상황 속에서 고도의 전략을 짜며”, “아직 매번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과정”이 있는 곳, “강함과 약함의 이분법을 무너뜨리는” 곳, “논리적이지 않고 구구절절한 것으로 여겨지는 정신질환자들의 이야기, 페미니스트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리는 곳, “비건과 장애인과 비수도권 사람과 청소년과 난민과 아픈 사람과 트랜스젠더와 퀴어 페미니스트가 우리도 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공간을 약자생존의 광장에서 보여주고 싶었다. “혐오와 차별과 폭력 밑에서, 결국 우리는 같이 위축되어있고, 같이 고통받고 있으며, 하나의 해결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정상’들의 연대는 결국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한 연대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약자생존’의 사회에 미리 가 있는 사람

오랜 기간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약자생존’은 완전하게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 공간이 되지는 못했다. ‘약자생존’을 위해 기꺼이 시간과 품을 내어준 스태프를 위해 준비한 식사와 간식은 다양한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제공되었고 시각장애, 인지적 장애가 있는 이들과 어린이를 위해 온라인 설명 페이지를 만들어 접속할 수 있는 큐알코드를 준비했지만, 이용방법이 잘 안내되지 못했다. 그리고 ‘약자생존’을 준비하는 길고 지난한 과정에 비해 일을 맡은 인원은 부족하여 구성원들 모두의 속도에 맞추며 진행하기 어려웠다. 우리 역시 “전혀적인 신체에 맞춰 돌아가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약자생존의 사회’에 사는 사람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약자생존’의 끝에 사회를 본 제이 활동가의 말을 되새겨 본다.

‘약자생존’이 만들고자 했던 시공간이 여기저기 더 많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종국에는 이 사회 자체가 ‘약자생존’의 공간이 되는 것을 상상한다. 언제 어디서든 ‘빈백’처럼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사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묻고 듣는 사회, 약 먹는 것을 드러내고 말해도 괜찮은 사회, 문자 통역, 수어 통역, 외국어 통역을 원한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회, 목소리를 애써 고르지 않아도 되는 사회, 화장실을 마음껏 갈 수 있는 사회, 느리게 걸을 수 있는 사회,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는 사회. 어쩌다 잠깐 생긴, 어떤 행사의 일부로서의 시공간이 아니라, 일상이 항상 그날의 잔디광장 속에 있는 것 같은 사회에서 사는 상상을 공유하고 싶다. 동시에 ‘약자생존’의 사회에 미리 가 있는 사람이 되어보자고 다짐해본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분들도 같이 그런 사람이 되어보자고 제안해본다.

■ 인용된 문구들은 모두 ‘약자생존’ 행사에서 발언해준 분들의 말들에서 가져왔다. 발언문 전문은 민우회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약자생존 후기에서 읽을 수 있다.

네?, 오심견이라고요??

코로나19 동안 실내에 갇혀 고정된 자세로 생활했던 나는 유착성 관절낭염(오심견)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팔이 어떻게 머리 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고 심지어 원래 그런 적이 있었나 싶었다. 매달리기, 엮드리기, 옷 입기 샤워하기 등등 팔근육을 이용하는 모든 일들이 버겁고 고통스러웠다. 당연한 것이 당연해지지 않을 때의 '낯설음'을 경험했고 이는 곧 무력감으로 이어졌다. 극심한 통증으로 새벽에 깨어 공공거리고, 어디에 부딪히더라도 하면 한참을 얼굴에 깊은 주름을 만들어 찡그린 채 통증이 사라지기를 기다려야만 했다. 그랬던 내가, 민우회 풋살 원데이 클래스를 신청하게 된 것은 참으로 뜻밖의 '용기'였다.

뜻밖의 용기로 만난 일상의 변화

이대로 굳어 버릴 수는 없어! 운명 같은 만남, FC호랑이
희망도 잠시, 원데이 클래스 후 나의 일상은 다시 내 어깨와 같이 굳어져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민우풋살리그' 출전을 위한 단기팀을 모집한다는 민우회 SNS 게시물을 보았다. 나는 망설임 없이 신청서를 제출했고 우리는 한낮의 뜨거운 햇살을 맞으며 망원유수지 풋살장에서 어색하게 자기소개를 나눴다.

회원팀의 열정적인 지원아래 우리는 'FC호랑이'라는 이름을 짓고 8주 동안 열심히 뛰었다. 연습 기간동안 한 번도 따로 친해지는 시간을 보낸 적은 없었지만 매주 연습을 마치면서 이미 다음 연습이 기다려졌다. 일상 생활을 하다가도 FC호랑이 팀원의 얼굴과 목소리를 떠올리며 미소 짓는 시간이 늘어났다.



원데이클래스로 시작된 삶의 변화를 만끽하고 있는 평범한 소비자



마침내, 1위! 민우풋살리그
리그 당일. 이른 새벽 설레는 마음을 안고 대전 경기장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다. 누군가는 떨어져 쉽게 잠이 들지 못하고, 누군가는 밤새 공 차는 꿈을 꾸는 바람에 몇 번이고 이불을 견어쳤다고 했다(필자). 그렇게 민우회 지부 5개의 팀과 응원단, 그리고 멋진 날을 준비해주시는 활동가 분까지. 햇살 좋고 바람 좋은 토요일, 여성으로 가득 찬 그라운드! 그 속에 우리는 나이, 성별, 직업, 신체에 의한 배제나 차별 없이 존재하고 있었다. 학창 시절, 남학생에게만 허락되고 그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처럼 보였던 운동장의 풍경이 스쳐 지나가며 마음이 벅차올랐다. 그들이 마음껏 누렸던 운동장에 우리가 도달하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다.

팀원 이름을 부르며 공을 차고, 서로의 얼굴에 맺혀 흐르는 땀방울이 눈에 들어오고, 팀원이 골을 넣을 때 내가 넣은 것처럼 기뻐하며, 팀원의 실수에 진심으로 '괜찮다' 말하며 격려할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강하게 연결되어 갔다. '내가 잘해서'보다 '너가 있어 줘서'라고 생각했고, '너 때문에'보다 '괜찮아, 잘했어'라고 말하며 그라운드를 뛰고 있었다.

어느새 정신을 차려 보니 FC호랑이는 1위에 올라있었다! (심지어 우리팀은 '지소연 상'을 배출하였다는 사실...!) 리그를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돌아떨어지기 전 나는 생각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도 나는 FC호랑이 팀원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렇게 실천하지 않는 사회에서, 종교에서, 문화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잘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강박으로 무장하고 스스로를 괴롭혀온 나는 FC호랑이와 함께한 8주간, 16시간 동안 나는 '뜻밖의 자유로움'을 경험했다. '우리가 국대는 아니지만, 제1회 민우회풋살리그'를 마치고

우리는 또 다른 약속했다. 부디 오늘의 환호성에만 머무르지 않길, 좋은 추억으로만 머무르지 않길. 그렇게 굳어져 버리지 않기를.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가 추천하는 드라마, 페미니스트가 안전한 장소 (카페, 식당, 술집), 페미니스트가 좋아하는 사람, 드라마, 영화, 책, 음악, 운동, 생활용품, 음식, 술, 공간..... 페미니스트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을 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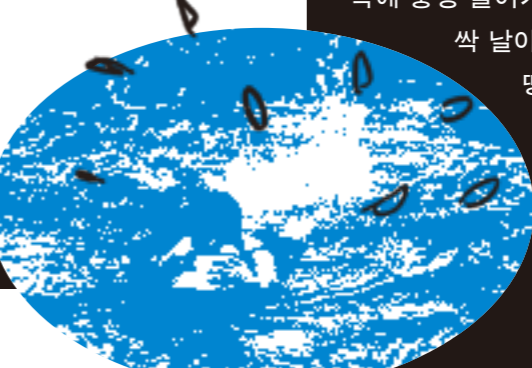
파운데이션

FOUNDATION

드라마 '파운데이션'을 추천합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엄청난 제작비를 갈아넣은 SF물입니다. 어머니에서 딸로 이어지는 여성 서사고요. '능력있는 여자가 다 해먹는 드라마'로 꿈과 사랑, 그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마지막화 엔딩에서 최고의 감동을 느낄 수 있어요. 애플TV 가입하고 6일은 무료 시청이 가능하니 무료로 보십시오! (단,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는 PC로만 볼 수 있어요.)

수영

'우울은 수용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 속에 동등 들어가면 우울함이 사르르 녹아서 싹 날아갑니다. 게다가 물 속에서는 땅에서 움직이는 것과는 다른 감각이 느껴져서 매우 재미있어요. 다른 운동에 비해서 수영은 쉽게 지루해지지도 않습니다!



1999년 민우회 회원 활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민우회 활동을 하고 심지어 대표까지 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학교를 졸업하고 생계를 위해 8~9년 정도 여성운동을 중단했던 시간이 있었다. 독박육아와 가사노동으로 분노가 가득하던 시절이다.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되뇌이며 하루하루를 보내다 운명적으로 다시 민우회를 만났다. 당시에는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모니터링과 미디어교육에 참여하였다. 비로소 숨을 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민우회는 내게 일종의 산소호흡기 같은 존재였다. 때로는 상근활동가로, 때로는 비상근활동가로 23년을 보내고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대표가 되어 있었다.

여행과 공부, 넉넉한 자유를 꿈꾸던 시간을
이렇게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대표 임기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 우선 누군가에게 너무 오래 대표성이 부여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함께 만들어가는 민우회의 활동이 개인에게 환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자에게도 어떤 역할을 언제까지 수행할지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거나 힘을 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 숨돌릴 틈 없이 무언가를 해내야 할 때도 임기 후 누릴 넉넉한 자유를 상상하며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다. 3년 그리고 다시 3년, 임기가 끝나고 나면 얼마간 여행과 공부를 하면서 지내리라 기대했었다. 20년 넘게 나를 열심히 활동했으니 그 정도 호사는 부러도 좋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변수가 생기고 말았다. 구조적 성차별을 부인하는 대통령이 당선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수많은 페미니즘적 비전을 잠시 유보하고 그들과 맞서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다.

이 싸움 속에서 더욱 강해지고 성장할 것이라는 점도 모르는 바 아니다. 모름지기 전 대표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만 1년도 되지 않아 신당역 사건, 이태원 참사, 여가부 폐지 등 대응해야 할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듯 하다. 여유롭게 보내려 했던 시간을 조금은 단축하는 수밖에. 내린 결론은 다시 적극 회원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이다. 당시와 같은 방식의 회원 활동은 아니겠지만 활동가들이 좀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응원하는 회원이 되고 싶다. 아마도 2023년은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성평등한 사회로 변화도 가까워질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가 그려온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시기다.

다시 적극 회원이

되어야 할 시간

책임과 권한이 적지 않은 대표로서 주의와 긴장 필요해
민우회 본부의 상근자 중 임기가 정해져 있는 활동가는 두 명의 대표와 사무처장, 부설 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있다. 사무처장과 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에 의해 임명되고 연임 제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격하게'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직책은 대표가 유일하다.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확대되고 조직 내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가 균형을 이루면서 대표 한두 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해도, 대표가 가지는 법적 책임과 권한은 여전히 적지 않다. 때문에 민우회는 연임 제한을 두어 개인의 역할과 영향력이 너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활동가나 회원과 위계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초유의 백래시 상황에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앞으로의 싸움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면서 혼자만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아닌지 자주 미안한 마음이 든다. 이는 공백을 우려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신뢰하는 활동가와 신임 대표가 존재하는 만큼 앞으로의 과정을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거세질 파도를 고려하면 혼자만 부담을 덜어내고 떠나는 게 아닌지 온통 마음이 편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미안해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페미니스트라면



● 동료 페미니스트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측 QR코드를 클릭해주세요.



즐리아
영화 '즐리&즐리아'를 좋아했던 분이려면 꼭 보셔야 할 작품이에요. 책 <프랑스 요리의 기술>을 쓴 즐리아 차일드가 tvN을 기획하고 출연하는 과정을 그렸는데요. 찌질하고 치사한 성차별, 인종차별 장면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지만, 당시 시대상을 잘 드러낸 것 같아서 가슴을 치며 보고 있습니다. 여성 캐릭터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장면이 다정하게 느껴지고, 맛있는 요리가 많이 나와서 만족스러워요. 웨브에서 볼 수 있어요.

푸드런텐초시청자협회
●음식이 나오는 프로그램이라면 무엇이든 볼니다

영지 ● 여는 민우회 회원·미디어팀.
 요즘 야구 수비 레슨을 열심히 듣고 있어요.
 페미니스트 야구팀 소개시켜 주실 분?
 연락주세요. (진심임)

15명의 '크로스 인터뷰'는 누구예요?

'크로스 인터뷰'를 아시나요?

민우회 소식을 자주 확인하신다면 '크로스 인터뷰'를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회원들과 더욱 지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월 활동가가 회원과 서로를 인터뷰하고 글로 녹여낸 활동입니다. 활동가 제이, 노새, 영지, 온다, 밍기뉴, 운소, 베리, 단호박, 보라가 참여하고 회원 고부가같이, 나리맛탕, 다정, 돌, 새벽바람, 수다, 코린, 양수안나, 엘라, 은하수, 인경, 장깡뚱, 첼시, 춘, 효선님이 인터뷰에 응해주셨어요.

같이 일해 본 회원, 가장 오래 알고 지낸 회원, 어린이와 함께 사는 회원, 운동에 관심 있는 회원 등 저마다의 섭외 동기가 있었는데요. 최근 올라온 활동가 보라와 회원 새벽바람님의 섭외 비하인드를 풀어보자면 두 분은 미디어팀의 활동인 쏟아지는 콘텐츠 속 한 줄기 빛(약칭 쏠콘빛) 영입팀 활동에서 만났어요. 그렇게 2년간 콘텐츠 이야기만 하다가 보라는 불현듯 항상 콘텐츠 영입에 진심인 새벽바람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섭외하게 되었답니다.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모임을 조심하면서 회원과 만나는 자리가 줄었잖아요. 그만큼 회원과 대면으로 만나 이야기 듣는 자리가 소중하면서 도 반가웠어요.

가수, 댄서, 디자이너, 미디어 리터러시 강사, 축구 강사, 출판사의 편집자까지 일부터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직업군의 회원들과 만나게 되었어요. 인터뷰는 짧은 즉문즉답, 양자택일부터 페미니즘 이슈까지 다양한 질문과 답이 오갔습니다만 민우회라는 공통분모로 모인 만큼 민우회와 관련된 질문은 꼭 등장했어요. 그 중 '회원가입' 계기가 정말 재미있고 다양했답니다.

- “강연을 듣다가...” (영지X춘 편)
- “트위터에서 많이 보이길래...” (베리X첼시 편)
- “게임 업계 페미니즘 사상 검증 이슈 이후...” (영지X장깡뚱 편)
- “친구와 같이...” (엘라X제이 편)
- “민우회 활동가에게 관심받고 싶어서...” (다정X제이 편)
- “대선을 거치면서 사회의 위험한 변화에 위기감을 느껴...” (고부가같이X단호박 편)
- “친척 언니가 밥 사준다고 데리고 가...” (수다X운소 편)

그 외에도 페미니스트 정체화 과정이나 살면서 겪는 고충, 페미니즘을 노동과 삶에 어떻게 녹여내고 있는지 말씀해주셨어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활동가 맛보기

'크로스 인터뷰'는 민우회 최초로(?) 대놓고 활동가를 드러내는 활동이기도 했어요. 인터뷰하기도 했지만 당하기도 했기 때문에 활동가의 별칭 뒷이야기, 민우회 활동가가 된 계기, 활동가의 빛과 그림자, 요즘의 관심사, 덕질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지낸 다른 활동가도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되면서 그런 사람(?)이었냐며 민우회 사무실이 웅성웅성 거러기도 했어요. 내가 함께하고 있는 단체의 활동가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신 분은 '크로스 인터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데자뷰..?)

보고 싶죠? 보고 싶을 거야...

아직 읽어보지 않은 분이 보셨으면 하는 바람과 '크로스 인터뷰'의 매력에 무엇인지 홍보하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정말 다양하고 서로 다른 페미니스트의 이야기가 쌓여있어요. 지금까지 올라온 크로스 인터뷰는 민우회 홈페이지 [참여][회원활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활동가, 회원이 민우회에서 활동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읽게 된다면 분명 민우회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이 글을 읽은 당신 보고 싶죠? 보고 싶을 거야...) 마지막으로 인터뷰한 회원분들이 남겨주신 '다른 페미니스트에게 전하는 한마디'를 가져왔어요.

“일단 보고 싶어요.”

“앞에서, 뒤에서 그리고 옆에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때 순간 느껴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잘 먹고 잘살아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곧 만나서 맥주 한잔해요! 상상만 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도 버티자. 오래 살아남자.”

중에서 캐시 박 총의(마이너 필름스)를 추천하고 싶어요! 여기에 이주민 여성 예술가 차학경 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보고 차학경 님이 쓴 <덕테도 읽었답니다. 마침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차학경 님 관련 전시를 해서 보러 가려고 해요. 이 아티스트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면 좋겠어요.

★ 장애와자금심 ★ 회원 호수

Q 모임에서 읽은 책(장애학의 도전)(망명과 자금심)이 모두 교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호수님은 동물해방, 장애해방, 페미니즘 등 다양한 이슈에 관심이 많잖아요. 새롭게 혹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부분이 있을까요?

A 장애해방운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당사자성이 없는 내가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까?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운동에서는 당사자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겠지만, 동시에 당사자성이 없는 사람이 해야 하는 역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비장애인인 내가 어떻게 장애인과 함께 운동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물음표도 던지고 대답도 찾아보았습니다.

Q '장애해방과 페미니즘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호수님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A 한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게 여성, 페미니스트, 비건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딱 하나만으로 정체성을 귀결하고 규정짓는 것은 폭력적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장애해방을 외치면서 여성의 삶도 함께 생각하고, 장애와 여성이 중첩되는 차별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운동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놓치는 것이 뭐가 있는지 더 고민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차별없는 세상을 말하는데, 그러면서 왜 '인간이 인간다운 세상'만 꿈꾸는가. 인간만 잘 살면 되나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구호에 빠진 존재는 없을까' 잘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Q 회원과 나누고 싶은 책의 구절이나 내용을 하나만 골라주세요.

A <망명과 자금심>에서 지역 내 차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전 평생 서울에서 살았는데, 지역에서 소수자가 더 고립되는 상황을 그동안 잘 인지하지 못한 거 같았어요. 또 저자가 장애인이자 퀴어 당사자라서, 그런 경험에 대해 많이 들은 것도 좋았어요. 부끄럽게도 저는 지금까지 장애와 퀴어 정체성을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또, 운동할 때 해당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겨냥해서 싸우기보다 CEO 집 안을 점거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쟁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공감이 많이 했습니다.

◆ 페미정신2 ◆ 담당 활동가 꼬깔

Q 어떻게 이번 소모임을 기획하게 되셨나요?

A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데, 당사자 모임은 잘 못본 것 같아요. 환우 모임은 있지만 그보다 좀더 문턱이 낮은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인이 많잖아요. 페미니즘 공동체가 대부분 구성원 각자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에 두려움이 적은 편인데도, 그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자유롭게 못하다고 느껴요. 개인적으로는 저 자신이 당사자이기도 하고, 주변 여성 중에서 정신적으로 힘든 경우를 많이 보기도 했어요.

Q 모임 안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데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궁금해요.

A 지난해 페미정신4에서는 <정신병의 나라에서 왔습니다>라는 책을 읽고요, 올해는 정신질환을 다룬 '다큐 시선', '매드프라이드서울', '스탠 바이 웬디' 등 영상을 찾아 보았어요. 사실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영상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본다는 게 워낙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도 여럿이 같이 봐서 끝까지 볼 수 있었네요. 그렇게 함께 읽고 보면서 여러 증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Q 어렵거나 아쉬운 점은 없었나요?

A 아진행을 하다 보니 '이 주제가 되게 어렵고 무겁긴 하구나' 싶었어요. 가볍게 볼 수 있는 영상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다 너무 무겁고... 또 영화나 다큐는 질환 자체를 제대로 보여주기보다는 사건의 자극적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질환 당사자가 등장하는 경우도 많아요. 좀더 보편적인 방식으로 질환을 다루는 영상,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영상이 있으면 좋겠어요.

소모임 인터뷰 리포트

안녕하세요. 편집팀 열쫌입니다. 민우회 활동가 대부분은 매년 1~2개의 회원소모임을 기획 운영하고 있어요. 민우회는 회원들의 힘으로 움직이는 '회원조직'이니까요. 2022년 하반기에 민우회 회원들은 어떻게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담당 활동가와 회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 머스타드/마요네즈 ♥ 담당 활동가 제이

Q 영어공부모임을 어떻게 기획하게 되었나요?

A 제가 원래 취미로 영어공부를 했는데요. 영어 팟캐스트를 듣다 보니 함께 나누고 싶은 콘텐츠가 꽤 많았어요. 그러다가 2020년 안식년 동안 영어회화 학원에 다녔는데 페미니스트로서 듣기가 불편하고 답답한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영어가 짧으니까 말싸움도 못하겠고... '이런 생각을 나만 하는 게 아니겠다' 싶어서 모임을 기획하게 됐어요.

Q 모임에서는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나요?

A 매일 영어 팟캐스트 콘텐츠를 반복해서 듣는 과제가 있어요. 일단 정확한 발음으로 천천히 말하는 팟캐스트, 그 중에서 녹취록이 있는 것을

찾고요. 일상적인 페미니즘 관련 콘텐츠를 골라서 들어요. 그리고는 모임에서는 콘한토코도 하고 팟캐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콘한토코는 영어로만 하지만 팟캐스트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어로 해요. 또 영작 과제도 있는데요. '내가 후회되는 것', '내가 용감하다고 느꼈을 때' 등의 주제로 글을 써오고 나눕니다.

모임을 진행해보니까 영어 레벨은 큰 상관이 없었어요. 문법을 틀리거나 단어를 잘 몰라도 서로 보완해주고요. 다들 잘 안되는 영어로 말하다 보니 엄청 웃겨요. 또 영어를 쓰다 보니 말과 글이 단순해지면서 오히려 솔직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 모임에서 영어는 '매일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된다'는 정도고, 공부보다 만나는 것에 방점이 있어요.

Q 지난해부터 영어모임을 하면서 '케첩', '머스타드', '마요네즈' 등등 소스 이름으로 모임을 운영하시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A 그게 처음에는 '캐치업 (CATCH UP)'에서 따온 건데요. 그리고는 시즌 2를 고민하던 즈음에 동료가 "그 다음은 머스타드 어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스 이름으로 시리즈가 만들어졌답니다.

◆렉-맥 ◆ 회원 라일리

Q 대놓고 음주하는 소모임인데, 어떤 술을 얼마나 드시나요? 술과 함께 책임기 모임에 해서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A 주로는 맥주? 논알콜 맥주도 있었고요. 모임 규칙이 '맥주 한 병'이었는데요. 그것도 안 드시는 분이 많아서 사실 아쉬웠습니다. 페미니스트를 딱치게 하는 이야기 소재, 술, 민우회,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룰 때 완전한 즐거움이...! 술과 함께 해서 더 편하게 화를 내며 이야기 나눌 수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안주를 사오는 것도 소소한 재미였는데요. 모임에 비건 지향을 실천하는 분이 계셔서 모두 성분을 따져서 음식을 가져오는 점이 좋았습니다.

Q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그중에 다른 회원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을 한 권만 골라주세요.

A 가야트리 스피박(읽기) 블라디미르 나보코프(플러티) 김효정의(아한 영화의 정치학)이렇게 세 권을 읽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 <플러티>를 추천합니다. 민우회처럼 편하고 솔직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논쟁적인 책을 함께 읽으면 재미가 배가될 거라 생각해요.

모임에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구성원들과 정말 다양하게 책 추천을 주고받았는데요, 그

공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지



광주여성민우회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햇살 ● 광주여성민우회.
해가 반짝반짝한 날에 에너지를 얻는다. '햇살!'로
불리며 해가 나지 않는 날에도 에너지를 받고 있고
그것들을 나누며 마음 쓰며 살고 있다.

제1회 민우풋살리그 '우리가 국대는 아니지만'이 끝이 났다.
어찌다 여기까지 온 거지?

어느 날부터인가 붙어온 여성 풋살 열풍은 나를 두근거리게 했다.
때마침 본부와 4개의 지부(광주·동북·진주·파주)가 함께하는
민우회 공동사업 '풋살 원데이 클래스'가 열리게 되었다. 클래스를
앞두고 활동가들과 '여성의 것이었던 적이 있었을까?' 싶었던
운동장에서 공을 차봤다. 숨차게 뛰어보며 해방감을 느꼈다.
걱정과 기대 속에 열린 원데이 클래스는 많은 예비 회원과
민우회가 만나는 연결고리가 되었다. 광주민우회는 그분들과
함께 풋살 소모임 'FCkick'을 창단했다.

그 후, 사무국장 네트워크에서 "여러 지부가 함께 풋살 리그전을
하면 재미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호응을 얻으며
'민우풋살리그'가 계획되었다. 원래는 서울에서 리그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광주지부가 "거리상 중간인 대전이 좋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다. 그리하여 광주 지부와 본부 활동가들이
함께 풋살 리그 기획을 맡아서 하게 되었다.

풋살 리그를 하려면 후원처부터 모집해야 했다. 본부에서는
'위밋업스포츠'에 후원을 요청했고, 스포츠 용품을
후원받았다. 광주지부는 평소 연이 닿아있던 곳에 다시 한 번 더
광주여성민우회가 어떤 곳인지, 민우풋살리그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면서 후원 요청을 드렸고 감사하게도 다들 수락해주셨다.
후원금과 함께 음료 및 간식을 후원해주시기도 했고, 유니폼
제작비를 후원받기도 했다. 장년차 활동가의 활동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시간도 했는데, 거래 은행에 만기 된 예금을 재예치하며
노련하게 후원 요청하는 모습에 감탄하기도 했다.

리그전이 다가오면서 광주 'FCkick'은 연습 횟수를 늘렸다.
무더위와 여름휴가가 겹치고 바쁜 일상에 밀려 연습 인원이
줄어드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러다 리그전에 못 나가는 것
아닐까?'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풋살로 머리를 비울 때 느껴지는
개운한 맛, 땀 흘리고 마시는 맥주 한잔의 맛! 이 맛에 다들
빠져들고부터는 기꺼이 시간을 할애했다.

이렇게 풋살에 빠져 산 지 6개월이 지났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다. 리그전은 아쉽게도 진주지부(FC찰라라)가 빠지면서,
5개 팀 √ FCkick(광주) √ FC해방(동북) √ FC호랑이(본부)
√ 달빛축구단(춘천) √ FC든든단단(파주)이 참가하게 되었다.
경기장은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선수들은 사투 비장해
보이기도 했다. 본경기에 앞서 팀 상관없이 미니 게임을 해보며
굳은 몸을 풀어보았지만 진지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마침
흥겨운 음악을 틀어주시고, 힘찬 진행으로 재미를 더해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대전풋살연맹의 사무처장님이였다. 광주지부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해주신 강사님의 소개로 풋살 리그
경기장을 예약했는데, 알고 보니 이 곳이 연맹 회장님께서
운영하는 풋살장이었다. 마치 월드컵(!) 경기 중계처럼
적재적소에 해설 멘트를 덧붙여 주신 덕분에 훨씬 더 재미있는
리그전이 될 수 있었다.

경기는 각각 한 번씩 시합하는 방식(리그전)으로 진행이 되었다.
또한, 승리 시 3점, 무승 부시 1점, 패배 시 0점으로 점수를 매기는
계산방식에 따라 결승전에 갈 두 팀이 정해졌다. 그 결과
FCkick과 FC호랑이가 결승에 올라갔다.

광주 FCkick은 리그전 1위로 결승전에 올라가면서 창단 이래
가장 기쁜 순간을 맞았으나...결승전 우승은 FC호랑이에게
내주게 되었다. 그러나 결코 아쉽지만 한 것은 아니다. 5등을
기록한 FC해방은 부상으로 '제2회 민우풋살리그 부전승권'
을 받았으니, 다음엔 우승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잔디밭
가득히 여성들이 서로의 이름을 외치며 치열하게 공을 두고
다투는 그 모습도 다시 보고 싶다.

긴 시간 준비했던 풋살리그가 끝나고 나니 흥분하기도 하고,
고민도 조금 가벼워졌다. 그런데 주머니도 가벼워질 것 같다.
찬 바람이 부니 새로운 장비가 필요해진 것이다. 바람막이부터
장갑, 귀마개 등 준비할 것들에 끝이 없다. "알고 보니 풋살은
귀족 스포츠"라고 팀원들과 우스갯소리를 했다. 한겨울의 풋살은
어떨지 상상이 잘되지 않지만, 팀원들과 함께 헤쳐 나가보련다.
그것이 팀이니까. 우리처럼 풋살에 진심일 많은 여성 팀을
응원한다!

☞ 은퇴 여성 선수들이 만든 여성과 아동을 위한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지부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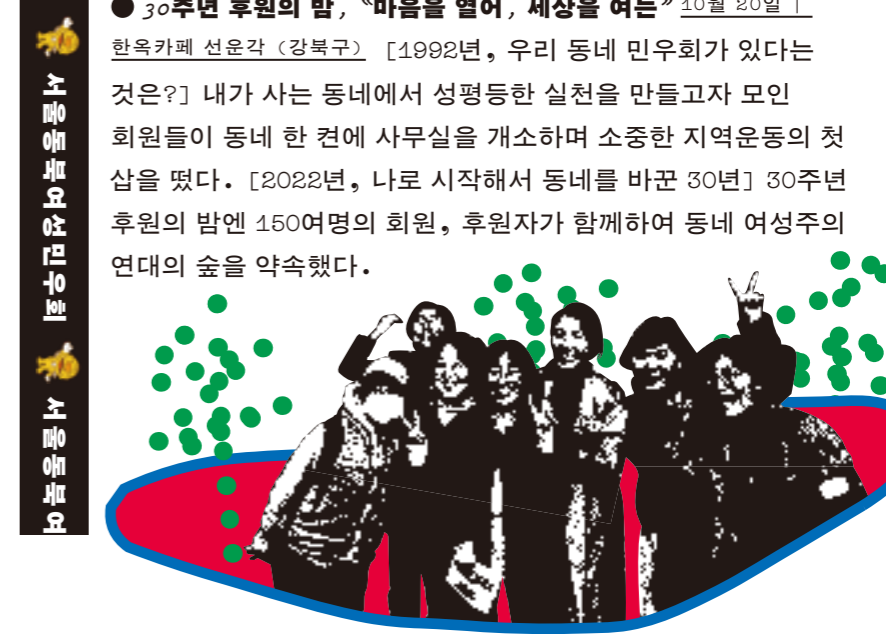
● 10회 고양여성영화제 토크쇼 '세상을 바꾸는 활동가,
지키는 활동가' 9월 16일 |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어울림영화관 영화제
기간 중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더 나빠지지 않는 세상을
위해 성적권리와 재생산, 환경, 난민지원, 동물권 분야
네 명의 활동가들이 모여 토크쇼를 열었다.
공통의 테마, '연결'이라는 주제로
활동가 정체성, 개인 그리고
각자의 활동 영역에서의
이슈들을 나눴다.
● 후원의밤 '보고싶었습니다' 11월
24일 | 웨스턴빌리프웨딩홀 활동가들이
만든 수제샌드위치와 와인, 함께누리
퍼플민 공연, 회원과 연대단체들이 함께
따뜻한 자리를 가졌다.
● 워크숍 '회원에게 길을 묻다' 11월 2일 | 일산서구청
여성커뮤니티센터 7~9월 진행한 '회원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고양민우회의 실행 가능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 방직공장 여성노동(자), 그 이전의 유림숲,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기록할것인가? 10-12월
|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공장 이전의 '유림숲'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일련의 진행하였다. 옛
광주시민들의 공유지였던 공간, 인간
외 다양한 생물종이 살았을 그곳의 흙,
여성노동자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살,
여성이 노동자로 인정받았던 유림숲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시간이었다. 여성의
해방구였던 묵묵같은 '일'을 기억하고
기록했다.
● 518차 영광탈핵순례 10월 24일 |
영광군청-한빛핵발전소 앞 안전한 핵은 없다!
핵발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안전한 탈핵을 위한
순례'에 광주여성민우회 활동가들이 함께했다.
● 2022 광주퀴어 문화 주간: 우리라는 무지개 11월 21-26일 |
광주광역시청, 전남대 도서관(정남마루) 4층, 광주극장, 대안공간 공공연
광주퀴어문화 주관에 참여하여 퀴어문화주간 선포식, 토론회
"퀴어 친화적인 광주를 상상하다", 퀴어영화 상영회, 디제이 파티
등 여러 프로그램에 함께했다.

● 지역활짝 사전 워크숍 - 마음열기, 조직과 '나' 연결하기 7월 6일 |
군포여성민우회 교육실 여성주의 타로를 통해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통찰하고, 미래 자신이 원하는 활동가로서의 내 모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의 '나'를 열고 나누는 작업을
통해 운영위원과 활동가
사이의 자매애를 재웠다.
● 성평등문화확산사업 '나는 너의 @이 아니야' 실태조사 및 대중
강연 9월 30일 | 군포여성민우회 교육실 산본역 중심상가거리로 버섯이
존재하는 여성의 상상문화와 여성거래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토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개선 방향에 대한 담론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성취취업 해체 담론의 자리를 통해, 저마대의
물음과 각오, 숙제와 벽참 등을 가지며 뜨거운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 친족성폭력피해생존자 생존기념축제 [생존자랑대회] 10월 29일
| 보신각 생존자랑대회 기획단으로 연대하였다. 멕시코 '칼라베라
카트리나'를 모티브로 '생존을 자랑하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생존자와의 축제'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생존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친족성폭력 가해자의 공소시효 폐지를
촉구하며 국가가 방기하는 사회구조 문제를 드러냈다.

● 30주년 후원의 밤, "마음을 열어, 세상을 여는" 10월 20일 |
한옥카페 선운각 (강북구) [1992년, 우리 동네 민우회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사는 동네에서 성평등한 실천을 만들고자 모인
회원들이 동네 한 칸에 사무실을 개소하며 소중한 지역운동의 첫
삽을 댔다. [2022년, 나로 시작해서 동네를 바꾼 30년] 30주년
후원의 밤엔 150여명의 회원, 후원자가 함께하여 동네 여성주의
연대의 숲을 약속했다.

● 30주년 후원의 밤, "마음을 열어, 세상을 여는" 10월 20일 |
한옥카페 선운각 (강북구) [1992년, 우리 동네 민우회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사는 동네에서 성평등한 실천을 만들고자 모인
회원들이 동네 한 칸에 사무실을 개소하며 소중한 지역운동의 첫
삽을 댔다. [2022년, 나로 시작해서 동네를 바꾼 30년] 30주년
후원의 밤엔 150여명의 회원, 후원자가 함께하여 동네 여성주의
연대의 숲을 약속했다.



● **아동청소년 주변인을 위한 성평등 교육** 10~11월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및 각 신청단위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을 진행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주변인(양육자, 교육자, 마을교육활동가 등)의 역할과 태도를 알아가는 '성인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한다.

● **동네페미니스트 춤 클래스 : 내 몸이 흐르는대로** 11월 14~22일
 | 도봉구 내 '달리고, 펼치고, 누비는 여성들' 프로젝트 3탄으로 춤 클래스를 운영했다. 장르춤, 막춤, 케이팝댄스 내 젠더표현을 경험하며 즉흥과 창작 맛보기까지! 몸의 확장성을 배워간다.



● **원주여성민우회 재정사업 '여민평등상회'** 8월 12일 |
 원주문화의거리 재정사업으로 여민평등상회 바자회를 진행했다. 각종 캠페인과 함께 진행된 바자회에 많은 시민이 참여했다

● **소소한 평등 콘서트 '차담토크'** 10월 24일 | 화북토 다도로 바라보는 성평등 문화체험, 차담토크를 진행했다. 다기의 역할을 알아보고 이를 성평등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제1회 원주여성영화제 '다시, 비상'** 9월 16~18일 |
 원주여성민우회, 원주OGV 총 14편의 장단편영화상영, 공모전을 통한 다큐멘터리 상영 및 감독과의 대화 진행, 부스,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 **한가위 이벤트** 8월 7~13일 | 온라인 소원을 말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인천여성민우회가 팍팍 밀어드리는 한가위이벤트를 회원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솔솔하게 추석 보내는 이웃을 찾아가는 산타페미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평등하여 평범한 심심한 삶을 살고 싶다' '여성혐오하는 정치인들 지구에서 사라지면 좋겠어요' 등 많은 회원이 성평등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 **대중강연, 저항적 질병서사란 무엇이며 어떻게 쓸 것인가?** 10월 24일 | 샤펀드미앙 2층 아파서 미안했던 당신의 집을 내려놓는 워크숍 '저항적 질병서사란 무엇이며 어떻게 쓸 것인가?'를 진행했다.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조한진희 작가와 함께 질병 경험을 저항적 서사로 재해석 하기 위한 관점을 나눴다. '잘 아플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의 의미를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다.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인천'** 지역 발족 11월 16일 | 인천시청 인천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활동을 결집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인천행동'을 출범하였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끝까지 막아내고,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통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결의했다.

● **성평등 전문강사교육** 8월 14일~7월 14일 | 진주여성민우회 사무실
 진주 지역에서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고자 전문 강사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을 통해 지역의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고 공론장을 마련하였다.

● **작은도서관 신간 도서 구입** 3월 7일 9월 23일 | 진주여성민우회 회원과 시민의 추천을 받아 서적을 구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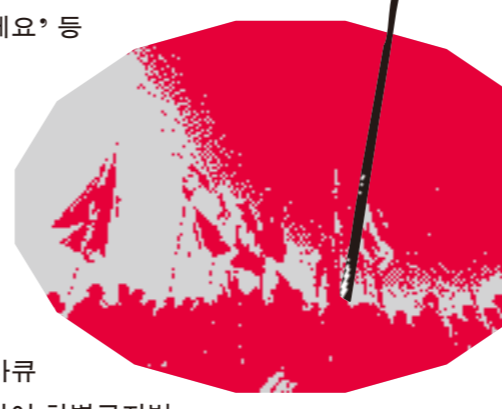
여성주의를 고민할 수 있는 다양한 책을 비치하여 방문자의 독서 시간이 늘고 대출 빈도도 높아져 도서관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 **제2회 춘천귀어문화축제 부스 참여** 9월 17일 | 의암공원 부스 참여를 통해 '재판모니터링단'과 '달빛여자축구단' 등 민우회 활동을 홍보했다. '귀어 귀-즈!' 맞추기와 상품 증정, '우리 동네 귀어에게 용기 주는 한마디' 포스트잇 붙이기를 진행했다. '모두가 존중받는 우리 동네를 위해! 좋은 사회를 위해!' '특별한 당신을 응원합니다. 춘천귀어들 항상 행복하세요' '혹시 외로울 때 늘 당신을 응원하는 우리를 기억하세요' 등 가슴 뭉클한 응원 문구를 받고 행진에 함께 참가했다

● **차별금지법에 관한 이야기** 7월 27일 | 카페 율혜의 땅
 '춘천인권라테'에서 공동주관한 차별금지법 다류 상영회와 간담회에 참석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 운동의 확산 방안을 논의하였다.

● **재판모니터링단 역량강화 교육** 10월 7일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회의실 젠더기반폭력 재판 모니터링단 역량강화를 위해 연대자D와 추적단불꽃 단을 강사로 초빙하여 재판 모니터링단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사항과 디지털 성범죄의 최근 동향을 점검하였다.



● **2022년 시민과 함께 하는 반성매매 캠페인** 10월 29일 | 연풍리 문화극장 일대 부설기구 <파주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함께'>에서 여성폭력 근절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EBS 연풍경원 가을축제가 열려 많은 시민이 함께 했다. 특히 캠페인은 어린이 동반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 **<FC 든든단단>, 소모임으로 확정!!** 11월 16일 | 민우본지부 풋살 친선 경기를 위해 함께 모인 <FC 든든단단>이 정식 소모임으로 확정됐다. 현재 16명의 선수로 구성된 <FC

든든단단)은 풋살을 통해 함께 운동하고 자매애를 다지고 있다.
 ● **성평등모니터링단 '정예단 신설'** 8월 14일 | 성평등한 파주지역을 위해 정책과 삶이 이어지는 성평등 모니터링단, '정예단(정책예산모니터링단)'을 신설했다. 정예단은 정책과 예산에 성인지감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정 감사와 분회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정예단의 첫걸음을 시작했다.



한국여성민우회 결산보고서

사무처, 성폭력상담소 합산
 (2022년 1월 1일 ~ 2022년 6월 30일까지)

과 목	단기 (제 36 기)
I. 사업수익	₩ 568,651,886
1. 회비 수입	₩ 246,263,384
2. 후원금수입	₩ 111,907,699
3. 보조금수입	₩ 201,412,160
4. 기타 수입	₩ 9,368,643
II. 사업비용	₩ 432,760,361
1. 사업수행비용	₩ 406,697,438
1) 급여	₩ 324,358,410
2) 사회 보험	₩ 31,952,220
3) 퇴직급여전입액	₩ 4,541,418
4) 조직활동비	₩ 4,552,920
5) 정책사업비	₩ 28,421,400
6) 정보홍보사업비	₩ 4,365,740
7) 교육사업비	₩ 423,000
8) 연대활동비	₩ 1,976,500
9) 재정사업비	₩ 6,405,530
2. 일반관리비용	₩ 26,063,213
1) 시설관리비	₩ 652,426
2) 통신비	₩ 1,975,450
3) 소 모 품비	₩ 9,557,730
4) 지급수수료	₩ 4,621,353
5) 세금과공과	₩ 2,669,680
6) 복리후생비	₩ 1,694,467
7) 회의비	₩ 401,687
8) 감가상각비	₩ 4,485,000
9) 기타 비용	₩ 5,720
III. 당기운영이익	₩ 135,891,525

신입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경일 강다영 강민진 강소희 강주영 고보혜 공경진 권성미 권성태 권현경 기연우 김건우 김경래 김남영 김남희 김덕준 김명순 김미희 김민선 김민재 김민혁 김성열 김수정 김수지 김아나 김아름 김연주 김영신 김유진 김유현 김은주 김인숙 김정하 김지민 김지원 김찬숙 김혜민 김혜정 류수연 문설이 문지은 박강희 박경희 박금창 박세미 박선운 박성아 박수진 박승숙 박승환 박영선 박이윤정 박지하 박찬애 박채완 박출이 박한솔 박혜민 백옥희 변요섭 봉우리 서경주 서한영교 석선옥 선미영 선우영돈 소연정 손세림 송이서 송진옥 신미영 신예정 양현주 오경민 오세연 오승민 우미랑 원민재 위지원 유미숙 유선형 유연희 윤라연 윤미경 윤복란 윤철현 윤정빈 윤혜정 윤후덕 이강욱 이경아 이금주 이나래 이난정 이명은 이미윤 이설화 이송 이수연 이수진 이아리 이용국 이용희 이은경 이재유 이정주 이주영 이준환 이지원 이현태 이혁재 임두리 임시현 임영란 임이랑 임이정 임현호 전영태 정경숙 정누리 정명희 정서영 정순옥 정연비 정유진 정윤재 정재은 정재훈 정주례 정형상 정혜영 조가형 조민경 조민선 정영이 채수빈 최경숙 최미사 최승정 최윤소 최윤혜 최은정 최주화 최현유 최현윤 최형준 최형준 춘성 한규익 한기명 한다영 한민균 한주연 허경옥 허서영 허세빈 허정숙 허정은 허지인 황범방 황은영 황재연 (총162명)

회비 인상으로 함께 해주신 회원님 감사합니다!

강시현 김민준 김선희 김솔희 김창훈 김한결 나효은 박지예 신소민 안예은 안정희 유은총 이새결 이유민 이정훈 임청빈 전영림 정미화 정지혜 최단희 최해진 한승주 (총 22명)
 ♪ 2022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계한 명단입니다.

2023 한국여성민우회 제36차 정기총회 공고

일시: 2023년 1월 28일 (토) 오후 2시 (접수: 1시부터)
 장소: 마포중앙도서관 6층 세미나실

총회에서는 한국여성민우회와 9개 지부의 2022년 활동을 보고하고 2023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3년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총회이고, 특히 새로운 대표와 이사를 선출하는 투표를 진행되오니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36차 정기총회에 대의원으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공지사항(12월 22일 공지)을 확인해주세요.

▶ 정기총회란 무엇인가요?
 '총회'는 민우회처럼 여러 사람이 모여 만든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법인의 운영과 사업에 관해 공유하고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 즉, 회의입니다. 총회를 통해 회원들은 대표나 이사와 같은 임원을 선출하고, 민우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운영에 대한 중요한 논의와 결정에 참여합니다. 매년 1월 개최되는 민우회 총회는 법인의 규칙인 '정관'에 따라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이기에 '정기총회'라고 부릅니다.

